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3186.38	↓ 코스닥	812.23
	(-28.90)		(-0.65)
↑ 금리 (미국 9년)	2.470	↑ 환율 (원/달러)	1385.60
	(+0.007)		(+5.40)



장기요양보험 한계 정부 통합돌봄 전환

고령사회와 새 패러다임

❶ 붕괴된 가족 돌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고령층의 1인당 진료비가 연 50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17조6000억원에 달하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 가족 돌봄 붕괴...재정 시한폭탄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고령 인구는 1051만명으로 전체의 20.3%다.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100명당에 대한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는 29.3명으로 약 41년 뒤인 2066년을 기점으로 100명을 초과한다. 돈을 버는 사람보다 부양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의미다.

고령인구 1000만명... 부담 급증 장기요양보험, 10년 내 적자 우려 가족 돌봄 붕괴, 사회적 책임 증가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제도 추진

고령화로 부양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가족 돌봄의 의미도 퇴색하고 있다.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1.5%포인트(p) 하락한 18.2%로 나타났다. 10년 전 31.7%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반면 '가족·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응답은 10년 전(47.3%)보다 13%p 상승한 60.3%였다.

돌봄을 위한 국가 재정 역시 녹록치 않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조6000억원에서 오는 2034년 40조9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연평균 10.2%씩 늘어 오는 2027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정부는 장기요양보험료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소득 대비 0.9182%로 동결했다.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2024년 말 4조9000억원(4.8개월분) 수준으로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아직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악화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해 203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 통합돌봄 시범...노인 요양인력 기준 강화

가족돌봄이 사라지고 재정이 악화하면서 정부는 통합돌봄 시범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100개 시군구에서 131개로 확대했다. 오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앞서 지자체가 전담조직·사례관리·재택의료 등을 한 계좌에 묶어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통합지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1대 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협업 인력배치 등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민관협업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연계를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31개의 시·군·구를 포함해 전체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 확산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요양시설 인력 기준도 강화됐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는 기존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고령화 및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문제해결을 위해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을 확대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외국인 유학생(D-2) 및 졸업생(D-10)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취업 시 특정활동비자(E-7) 변경을 허용한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자사주 소각 의무화... 행동주의 힘 실린다

상법 개정 후 주주가치 제고 강조 장기적 기업 투자 여력 감소 우려

'자사주 원칙적 소각'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내의 행동주의 펀드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된 기업 이사의 총괄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까지 공포되면서 주주가치 제고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양상이다.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을 공략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주들의 권익을 수호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기업의 중장기적인 미래보다 단기 이익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기업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 '자사주 소각' 핑곤했던 생긴 행동주의 펀드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인 밸류파트너스자산운용은 최근 나이스정보통신에 "주가는 장부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도, 이사회와 경영진은 막대한 현금을 쥔 채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행동주의펀드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재계는 이들의 먹잇감이 될까 전전긍긍한다.

한화, 삼양통상, 포스코인터내셔널, LG, 롯데케미칼, 한진칼, LS, 한화솔루션 등 10곳은 자사주를 늘리면서도 3년간 자사주를 소각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삼성전자가 지난 2월 대규모 자사주 소각을 단행했고, 최근 3조9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이 중 2조8119억원어치를 소각하기로 했다. LG는 내년까지 전량 소각 계획을 발표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 시장에서는 기업이 회삿돈으로 사들인 자사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지 않고 대주주의 사익을 위해 활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자사주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논의에 있어 자사주 제도 개선은 늘 핵심적인 쟁점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 "기업 투자 여력 떨어뜨려" 지적도

행동주의 펀드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진다. 글로벌 거버넌스 리서치 회사인 딜리전트 마켓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0년 10곳 정도에 불과했던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 국내 기업은 2021년 27곳, 2022년 49곳, 2023년 77곳으로 급증했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메트로신문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성료

메트로신문 주최로 열린 '2025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의 두번째 모임이 16일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장효진 KB손해보험 파트장, 김도인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박재신 우리은행 부장,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순우 메트로경제 언론윤리실천위원회 위원장(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이사,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 김윤일 증권금융 상근감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손진영 기자 son@

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 앞장 설 것"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與, 물가·폭염대책 현장 점검 온라인도매시장, 밥상 물가의 열쇠 유통단계 축소·투명화 실현 플랫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생현장을 찾아 폭염·물가 대책을 점검했다. 히트플레이션(heat-flation·폭염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온 만큼 물가 상황을 챙기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돌아보기 위한 취지다. 또 야당이 주도권 다툼을 하는 와중에도 민생 경제를 챙기는 집권여당의 면모를 보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aT센터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물가안정과 유통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온라인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다.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며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

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활성화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화를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면 히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직접 마트·시장을 방문해 장을 보는 이들보다, 온라인으로 주문해 배송받는 경우도 많으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신속 입법... 북한, 주적 아냐" /사진 뉴스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신속 과제로 추진"

▲통일연구원장 "통일부 명칭서 '통일' 삭제는 매우 부적절"
▲기재부, 낭비성 예산 과감히 줄여 국정과제 재원 마련한다

▲오세훈, '5선 서울시장' 도전 시사... "시민들 판단 지켜볼 것"
▲대통령실, 강선우·이진숙 사퇴론에 "청문회 과정 지켜보고 판단"

“감사-준법 협력해야 내부통제 부실 예방… 제도 보완해야”

메트로신문,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책무구조도, 실무 예로 반영 안돼 시행 1년째 가이드라인 기다려”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사 합리적 판단으로 임무 수행시 손해 발생해도 결과적 책임 없어”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1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메트로경제 주최로 열린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에서 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감사부서의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준법부서와 공유가 없다면 리스크관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개정된 상법은 이사회를 책임의 더 무겁게 묻는다.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까지 모두 독립된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은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올해 두 번째 ‘감사·리스크 관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주요 금융사 감사 40여명이 모여 새 정부에서 공표된 상법 개정안과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 발맞춰 금융사의 ‘리스크(위험) 관리’ 중요성을 상기하고,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2개의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책무구조도 시행과 영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배임,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 장치다. 임직원마다 책무를 명확히 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책무구조도는 법안 발의 후 본회의 통과까지 6개월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빨리 통과된 만큼 실무에서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시범 실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설계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 의무를 살펴보면, 은행법 제34조의3에 따라 은행은 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 지점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해외 지점과 해외 자회사까지 국내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애매한 해설서와 Q&A(질의응답)가 나왔고, 법

적 근거나 논리가 타당하지 않았다”며 “국내 모회사와 관계에서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감사부서에서 감독당국에 금융사고를 보고했음에도 준법부서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부서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건 맞지만 준법부서와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리스크 예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백상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상법 개정의 내용과 영향’이란 주제 강연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표된 상법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백 변호사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회사의 이익과 주주의 이익이 무관하다고 보는 견해는 없고, 결국은 회사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의미 안에서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재돼 있다”며 “다만 충실의무는 수단채무일 뿐 결과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사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임무를 수행했다면, 결과적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탓할 수 없다는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독립이사와 관련해서는 “거래소 상장규정에 독립이사의 요건을 규정해줬지만 그에 더해 ‘이사가 독립적이었는지 여부’를 법원의 해석에 따라 사후적

으로 판단하도록 했다”며 “상황에 따라 지배주주 이익과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돌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이사의 독립성 판단에 대해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적, 감정적 관계가 모두 독립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트로신문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반영해 올해 포럼의 범위를 기존 감사에서 ‘감사와 리스크 관리’로 확대했다.

이장규 메트로신문 대표는 개회사에서 “성공한 자의 오만을 역사학자 토인비는 그리스어로 ‘휴브리스(Hubris)’라고 불렀다. 성공한 기업이 있는 국가나 기업·조직·정당이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오류’라며 “리스크 관리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조직이나 리더가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거나, 오만에 빠지거나, 교활한 의사 결정을 내리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감사와 리스크 관리는 마치 병력을 지키는 보초병과 같다는 부연이다.

이순우 메트로신문 언론윤리실천위원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가 살다보면 갑자기 아픈 순간이 생기고, 기업들도 같다. 기업이 아플 때, 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환자의 정확한 증세를 진단할 수 있는 명의가 되어야 하고,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서 계속

취업자수 18만명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난 지속

통계청, 6월 취업자수 2909만명
농림어업·건설업·제조업서 감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하고 건설업·제조업 일자리 부진이 지속됐다. 또 29세 이하 고용률은 14개월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9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8만3000명(0.6%)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작았다. 올해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19만 명대에서 5월(+24만5000명)에 20만 명대로 올라섰으나 6월에 +18만 명대로 폭이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1만6000명), 전문·과학및기술서



비스업(+10만2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농림어업(-14만1000명), 건설업(-9만7000명), 제조업(-8만3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특히 건설업은 14개월째, 제조업은 12개월째 감소했다. 농림어업도 5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제조업(5월 -6만7000명→6월 -8만3000명)은 내수 부진과 통상 리스크에 따라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됐다. 농림어업(5월 -13만5000명, 6월 -14만1000명)은 강수 등 기상 영향으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다만 건

설업은 취업자 감소폭(5월 -10만6000명→6월 -9만7000명)이 축소됐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4만8000명), 30대(11만6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5만2000명), 40대(-5만5000명), 50대(-5만3000명)에서는 감소했다.

15~29세 취업자는 362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7만3000명 감소했고, 감소폭도 5월(15만명)에 비해 확대됐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를 보면 임금근로자는 225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명(1.4%) 증가했지만, 비임금근로자는 651만3000명으로 13만명(2.0%) 감소했다.

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년동월 대비 1.0%포인트(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환율 하락… 수출·입 물가 3개월 연속 ↓

한은, 수출 물가지수 1.1% 하락
농림 수산물 1.8%, 공산품 1.1% ↓

지난달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국제 유가가 한달 전과 비교해 8.7%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로 내린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가지수는 126.95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1% 하락했다. 수출물가지수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출 물가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내린 영향이 컸다. 원·달

러 환율은 지난달 1366.95원으로 전월(1394.49원)과 비교해 27.54원 내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 수산물은 냉동수산물(-1.5%)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공산품은 화학제품(-1.8%),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1.8%) 등을 중심으로 1.1% 낮아졌다.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한국으로 수입

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월평균 가격은 지난달 배럴당 69.26달러로 전월(63.73달러) 대비 8.7% 상승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상승을 초래했다.

유가 급등의 여파로 원재료는 원유(6.5%)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5% 뛰었다. 중간재는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원·달러 환율이 감소하며 1.6% 하락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고배당·자사주 소각 등 장기적 투자 여력 줄여 미래성장 제동 ‘역효과’

지난해에도 66곳이 공개적인 주주 행동주의 캠페인 대상이 됐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으로 개인투자자가 늘면서 주주환원을 앞세운 행동주의 펀드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새 정부가 증시 부스트업과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서면서 올해 행동주의 펀드들의 주주환원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행동주의 펀드에 호응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 나서지는 기업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올해 자기주식 소각 금액은 15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규모인 13조 9000억 원을 넘어섰다. 현금배당 결정 금액도 37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34조 2000억 원 대비 10% 증가했다.

기업이 고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투자자의 부는 늘어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여력을 줄여 미래 성장을 해치는 역효과가 불가피하다. 장하준 영국 런던대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강연에서 대기업의 전횡도 문제지만, 주주 환원율이 미국처럼 90% 정도로 높아져, 제조업체 등이 현금인출기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는 끝난다고 경고했다. /원관희 기자 wkh@

中, AI·드론 등 무기체계 첨단화 韓, 수출 경쟁력 확보 '골든타임'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

中, 첨단무기 기반 방산 굴기나서 '민군 융합' 전략 통해 경쟁력 강화

韓,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 추진 '민간기술, 방산 활용 근거 마련해야'



주하이 에어쇼에서 전시된 로봇 늑대 /산업연

중국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고 AI(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무인 전력 중심으로 무기체계 첨단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기존의 재래식 무기 수출에서 벗어나 글로벌 방산시장 전면에서 나서는 형국이다.

한국 역시 제3세계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중국과의 정면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중국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영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민간 기술을 군사 분야에 유기적으로 이식하는 '민군 융합' 전략을 통해 무기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무인 전투로봇 '로봇 늑대(机器狼)', AI 기반의 '벌떼 드론(蜂群无人机)', 무인 전투함 '범고래호' 등을 개발하며 첨단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민간 첨단

기업의 기술을 방산기업에 직접 투입하는 구조적 전략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중국 방위산업이 내수 중심의 성장 단계를 거쳐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래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AI, 드론, 로봇 등을 기반으로 무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선 민간 산업 육성 - 후 민간 기술의 방산 분야 적용'의 선순환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이 방위산업에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방산 기업 통합도 속도를 내며,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초 중국선박집단(CSSC)은 중국선박중공업집단(CSIC)과의 합병을 완료했으며, 지난 2월에는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과 중국병기장비집단(CSGC)의 합병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무기체계별 주요 기

업 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변화는 방산 수출 지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은 FA-50 경공격기 등을 앞세워 동남아·중동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 역시 J-10C 전투기와 왕룽 드론 등을 앞세워 같은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수로 기반을 닦은 뒤, 파키스탄·태국·미얀마·알제리 등으로 재래식 무기 수출을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중동·아프리카 국가로도 무기 수출선을 넓히는 추세다.

보고서는 "전통적으로 서방국 의존도가 낮고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우호적인 국가들이 중국 무기체계를 수용할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산업연구원 박해지 연구원은 "한국도 재래식 무기 중심의 수출 전략을 넘어, AI·드론·전자전 무기 등 첨단전력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술협력사업과 신속시범사업 등을 활용해 민간기술을 방산에 효과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2025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늘린 1조7847억 위안(약 358조원)으로 편성했으며, 2035년까지 '군 현대화' 달성, 2049년까지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국방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이창용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 중요"

ADB-BOK-JIMF 컨퍼런스

"금리 등 대내외 충격 기민하게 대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정책을 정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책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데이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집값이 상승하자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후 한국은행도 금리가 낮아져 가계대출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보다 더 정책조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한국은행도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부채 정도와 전(全) 금융기관의 자본비율 상태, 내부 통제 등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직접 들여다 보고 조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거시건전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비은행 금융감독기관도 한은의 자료를 받아야 하니 공동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감독기관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기관이 정책수단을 나누

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정책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제시는 정책방향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형성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정책방향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에서 환율 수준이 결정되도록 하되, 대내외 충격으로 환율의 변동 속도가 급격히 확대될 경우 금리정책, 외환시장 개입 등의 조합을 통해 속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운용과 더불어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활용해 대내외 충격에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음원플랫폼업체 "보상 등 상생안 재조정해야"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논란

잠정 동의의결안 반발 움직임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 입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유튜브 라이트)' 요금제 출시를 허용키로 하면서,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구글의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다며 공정위가 구글과 토종 음원 서비스 업체들에 대한 보상안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은 공정위가 구글과 관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로 국내 시장을 장악한 유튜브로 인해 설 자리를 잃은 국내 음원 플랫폼사들을 위한 지원 방안이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음원 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의미하나, 이미 수년간 누적된 음원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거래 결과를 정상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공정위의 조사 지원으로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 전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들이 공정위가 구글과 협의해 내놓은 잠정 동의의결안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켓GPT 생성 이미지

부터 이미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으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 대상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75억원) ▲재판매사(리셀러)와의 제휴를 통한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75억원)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150억원) 등을 약속했다.

국내 음원 업체들은 재판매사가 유튜브 라이트 결합 상품을 기획할 때 음악 서비스 외 이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포함해 혜택을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공정위가 기대하는 '유튜브 라이트+음악 서비

스' 결합 상품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유튜브 라이트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통신사·카페·편의점·베이커리 등의 할인 혜택을 합친 상품 판매가 활성화되며 유튜브의 시장 점유 속도가 가팔라져 정책 효과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음원사들은 '유튜브라이트+음악 서비스' 결합 할인 상품으로 범위를 좁히는 방안으로 상생안을 재조정해야 그간 음원 플랫폼 업체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에 15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금번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로 특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생 방안이 직접 피해자인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에 대한 지원 내용이 없었다. 해당 재원을 음악 플랫폼 사업자의 피해 구제에 활용할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긴 시장 피해에 대해서도 구글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hki@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신속과제 예고

국정위 "내일 피해자 간담회 개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도입을 신속과제로 추진한다.

조승래 대변인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신속추진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세사기 관련 간담회가 두 차례 개최됐다"며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구제 방안 등 피해자 구원 필요성과 전세사기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인공지능(AI), 인구 문제 등 다부처 사안을 복합·전략적 과제로 선정해 논의를 진행한다. 이에 국정위는 국정과제, 세부실천과제에 더해 복합전략 과제까지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 대변인은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10개 안팎의 복합전략 과제를 분류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국정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결론을 낼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조 대변인은 "개편의 방향에 대해 의견들이 조금 갈리고 있다"며 "점점이 만들어진다면서 관련된 개편안을 준비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접점이 만들어질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디어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을 경우 국정위가 신설을 검토 중인 '미디어 혁신법 국민협의체(가칭)'가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대변인은 "협의체에서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말 안 해도 통한다”... ‘ambient AI’로 스마트폰 혁신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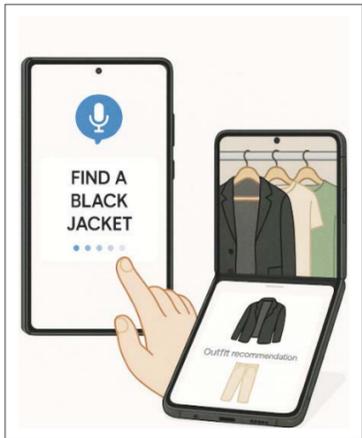
삼성美 ‘갤 Z7’ 관련 간담회

‘보이지 않는 AI’ 구현 등 목표 음성·텍스트 없이도 상황 파악 개인화 AI로 사용자 루틴 예측 카메라로 옷장 비추면 의상 추천

‘나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는 인공지능(AI)이 온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AI 기술인 ‘ambient AI’를 앞세워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음성이나 텍스트 입력 없이도 상황과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이지 않는 AI’ 구현이 목표다.

박지선 삼성전자 MX사업부 펍키지 AI팀 부사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윌리엄 베일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멀티모달과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능력을 갖춘 AI는 사용자 경험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며 “일일이 타이핑하지 않



챗GPT로 생성한 삼성전자의 음성이나 텍스트 입력 없이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보이지 않는 AI’에 대한 이미지.

아도 눈앞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친구처럼 AI와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공개한 ‘갤럭시Z 폴드7·플립7’에 폴더블폰 특화 멀티모달 AI 기능을 탑재했다.

멀티모달 AI는 음성, 텍스트, 이미



챗GPT로 생성한 ‘갤럭시Z 폴드7·플립7’의 멀티모달 AI 기능을 사용하는 장면’에 대한 이미지.

지 등 다양한 감각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고 이해하는 기술로, 입력 방식의 경계를 허무는 차세대 인터페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폴드7은 대화면을 활용해 실시간 음성 명령을 반영하는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을 지원하며, 플립7은 ‘플렉스 모드’에서 카메라로

옷장을 비추면 어울리는 의상을 추천해 주는 식의 영상 기반 응답 기능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을 AI 생태계의 중심 허브로 설정하고, 이를 워치, 링, XR, 가전, TV 등 다양한 기기로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스마트워치나 링에서 수집한 생체 정보와 스마트폰의 위치·일정 데이터를 통합해 사용자의 상태와 요구를 예측하고, 맞춤형 기능을 먼저 제안하는 구조다.

이러한 ‘능동형 인터페이스’는 차세대 갤럭시 소프트웨어 ‘원UI 8’을 통해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사용자의 루틴을 예측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개인화 AI’를 지향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 골드스미스 경영연구소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약 45%는 타이핑만큼 음성 명령을 자주 활용하며, 60%는 스마트폰이 사용 패턴을 학습해 스스로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응답했다.

삼성전자의 전략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AI 경쟁에서도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이 iOS 기반의 온디바이스 AI에 집중하고, 구글과 아마존이 음성 비서 중심 생태계를 확장하는 가운데, 삼성은 하드웨어 연동성과 인터페이스 유연성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체 언어모델 ‘가우스’를 중심으로 한 온디바이스 처리 기술과 외부 모델과의 혼용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AI’ 전략은 성능과 개인정보 보호, 디바이스 최적화라는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 우위를 노릴 수 있는 포인트로 평가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디바이스 최적화와 하이브리드 전략을 병행하는 삼성전자의 방식은 성능과 보안, 사용자 경험을 모두 확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며 “인터페이스 중심의 차별화 전략이 글로벌 경쟁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3조 규모’ 유상증자 완료... 한화에어로,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

2029년까지 1조3000억 투자 모듈화 장악 스마트팩토리 구축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법인 설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약 3조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최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방위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기반을 확립했다. 이번 증자는 단순히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본격적으로 넓히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확보된 자금은 유럽,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전략 국가들에서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 스마트팩토리 구축, 그리고 공급망 강화 등의 핵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계 사상 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 /한화에어로

대인 총 2조918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확보된 자금으로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거점에서 생산기지 및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지화 전략을 심화시

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할 예정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시장 내 방산 생산 기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모듈화장악(MCS)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하고, 자주포 현대화사업(SPH-M)에 K9A2로 참여 중이다.

고위험 기초 화약소재 니트로글리세린을 포함한 탄약 밸류체인 전반을 미국 내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니트로글리세린은 탄약 추진제와 장약의 핵심 성분으로 쓰이는 고위험·고폭발성 화약 물질이다.

중동 지역의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 협력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우디 현지 업체와 합작법

인(JV)을 설립해 중동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투자와 기술 협력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유럽시장의 경우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방위력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WB그룹과 협력해 현지에 천무 유도탄 합작공장도 추진하고 있다. 80km급 천무 유도탄(CGR-080)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이다. 가격과 공급 안정성 측면 등 경쟁력이 부각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강화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성장

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 산업을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해외 시장에서의 생산 능력 확대와 현지화 전략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확보된 자금을 통해 현지 생산기지와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추진하고, 더욱 빠르게 글로벌 방산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한전, 사우디 태양광·가스복합사업 본격화

사우디 발전사업 PF 계약 체결 5.5조 민자발전사업 금융조달 완료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동 에너지 시장 공략에 본격 착수했다.

한전은 사우디 사다위 태양광발전사업과 루마1·나이리아1 가스복합발전사업에 대해 총 40억4000만달러(약 5.5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PF는 한전의 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이 자립적으로 조달한 무보증 PF 방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국제 상업은행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글로벌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비교적 경쟁력



사우디 루마 가스복합 발전소 예정부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취재단

있는 조건으로 자금을 유치한 사례다.

두 사업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금융 계약을 계기로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간다. 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PF 추진 사례는 총 23건에 달하게 됐으며, 이는 국내 기관 중 최대 기록이다. 특히 지난해 10월

수주한 사다위 태양광 사업은 2기가와트(GW)급 초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로, 단일 사업 기준 사우디 최대 태양광 프로젝트다. 한전은 이를 통해 25년간 약 3억9000만달러(약 54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같은 해 11월 수주한 루마1·나이리아1 가스복합 발전사업은 총 3.8GW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25년간 약 30억달러(4조원)의 수익이 전망된다. 두 사업을 통해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전체 매출은 자본 기준 약 4조5000억원에 이른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PF 조달은 수출 금융기관과의 협력 성과이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모델인 팀 코리아 전략의 대표 사례”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갤럭시 Z’ 사전예약... 보조금 경쟁 불붙나

단통법 폐지 앞두고 통신사 과열 예상 공시·추가지원금 최대 57만5000원

삼성전자의 ‘갤럭시 Z’ 시리즈 신작이 사전예약에 돌입하면서, 휴대폰 교체를 고민하는 소비자들의 선택도 복잡해졌다. 구매 혜택이 집중되는 사전예약 기간(15~25일)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점(22일)이 겹치면서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가 단통법 폐지 직후 즉시 지원금을 풀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예약 혜택을 챙기되, 단통법 폐지 전후 통신업계의 동향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3

사는 전날부터 시작한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예약에서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내 추가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57만5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상반기 출시된 갤럭시 S25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이 최대 24만5000원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러한 고지원금 책정 배경에 단통법 폐지 이슈가 작용했다고 본다. 공시지원금 상한이 유지되는 마지막 시점에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한 전략적 설정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최근 통신 시장을 뒤흔든 변호이동 열기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센터 (1577-8000, 평일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

신뢰도 추락한 野... 내각 후보자 의혹 공세에도 '역부족'

장관 후보자들, '버티기' 돌입
정권 초 지지율 타격 크지 않아

野, 낙마 목표 검증수위 높였지만
역검증 당하거나 지지 못받아
'도로 친운당·영남 지역당' 전략

'갑질 의혹'·'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나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해 정부가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고 '정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버티기에 나서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신뢰도가 추락한 제1야당이 펼치는 공세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는 지난 14일 청문회를 마쳤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강 후보자는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등을 돌리고 있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교육위 의원들의 고발장을 들어보고 있다. /뉴스1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16일 열렸지만, 학계는 이 후보자가 입각하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법학계 국민 검증단의 유원준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새로운 형태의 연구 부정"을 했다며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자기의

논문인 것처럼 그 학술지에 게재하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표절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의혹에도 정권 초 지지율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도 후보들이 버티기에 나설 수 있는 주요 요인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주 연속 상승하며 64.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6월 이후 7년여 만에 정당 지지율이 최고치를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6.2%로 전주보다 2.4%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주대비 4.5%포인트 하락한 24.3%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낮은 지지도도를 보였던 지난 2020년 5월 3주차(24.8%)보다 낮은 최저치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6.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응답률 5.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의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의혹을 들춰내며 낙마를 목표로 검증 수위를 높

이고 있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역검증'을 당하거나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대선 패배 이후 등 각종 논란에 시달리며 '도로 친운(친윤석열)당'·'영남 지역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자체의 메시지 신뢰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적 의혹을 받는 후보자들이 '버티기'에 돌입한 이유에 대해 "대야관계 속에서 최대한 작은 걸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며 "이전 문재인 정부는 인사 검증 기준 7개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는 그런 기준도 없다.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보겠다는 건데, 대통령 본인에 대한 충성심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문제가 많지만, '국민의힘 내란 세력보다는 낫다'는 사고도 있을 것"이라며 "국민 60% 이상이 날 지지하니까, 대통령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생현안 필요 후속입법” vs “확장재정 정책 진행”

(정청래 민주당 의원)

(박찬대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경제성장 해법 구상
정청래 “정부 정책 뒷받침 역할 집중”
박찬대 “첨단산업으로 구조 대전환”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16일 첫 방송 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을 두고 자신만의 구상을 밝혔다.

정청래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책과 경제 성장 해법은 당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당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첫번째 원칙은 당이 이부

분은 먼저 치고 나가지 않는 것"이라며 "그리고 당·정·대(정당·정부·대통령실)가 충분히 조율한 상태에서 그 타이밍을 맞춰서 국회에서 입법할 것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당 대표가 되면 아마 이 대통령께서 축하 전화를 하실 것"이라며 "그러면 바로 면담을 신청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로드맵을 짚 것을 놓고 민생 현안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후속 입법을 제가 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오는 21일부터 소비쿠폰이 발행될 예정"이라며 "지역화폐로 4개월 안에 소비 진작을 해서 돈

이 돌기 위해 이를 먼저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 시가총액이 360조원이 뛰는 등 주식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부분도 코스피 5000 시대를 맞이 위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당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후보는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 3년의 부정적 영향을 씻어내겠다고 했다.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은 폭망하고 경제도 후퇴했다"며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코로나 때보다도 어려웠지만 윤석열 정부는 어떤 민생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박 후보는 "그래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빠른 집행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 개선의 마지막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단순한 수요주도나 건설업 중심이 아닌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의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제조업 강국으로 추격 경제를 해나갔지만, 앞으로는 기술 기반의 선도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첨단산업으로 구조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산업 체제를



정청래·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위해 국회에서 입법, 예산, 재정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태홍 기자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스스로 거취 밝혀라”

윤희숙 혁신위원장 '1차 인적쇄신안' 당 전원 계파활동 금지 서약서 요구

윤희숙 혁신위원장(사진)이 16일 1차 인적쇄신안을 밝히며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송언석 의원은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장으로서 1차 인적쇄신안과 함께 당 의원 전원이 계파 활동 금지 원칙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일요일에 이 자리



에서 이 지경에 오기까지 책임 있는 분들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촉구했다"며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워지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지난 일요일 이후에 3일 동안 당의 모습을 봤을 때 사과하는 분은 없었고, 사과는 커녕 '사과할 필요 없다', '인적 쇄신 필요 없다'며 과거와의 단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비난했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된 단절을 해달라는 당원

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윤 전 대통령에게 가까이 붙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며 "이것은 광화문 광장 세력을 당의 안방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지난 1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 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행사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했고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나와 논란이 일었다.

윤 위원장은 "그 자리에 갔던 의원에게 질문한다. 의원님께 계엄은 계몽인가. 추억인가"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산업현장 폭염안전 기본수칙 시행여부 확인”

>> 1면 '김병기 "물가안정..."'서 계속

간담회에 참석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농식품부는 생육 관리 중심의 적정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온라인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직무대행은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초서브허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갖고 "폭염을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 선제적인 대응을 해

야 한다"면서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여부가) 관심 사안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을 전후로 농민, 택배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쿠팡에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서예진 기자 syj@



AI는 언제나
사람을 향해야 하기에
기술보다 안심을 먼저 생각합니다

기술이 앞서가도
불안은 뒤에 남지 않도록
사람의 편에서 믿고 함께하는 AI

유플러스가 익시 가디언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AI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중심. 안심 지능.

Assured Intelligence



익시 가디언 ixi-Guardian
LG유플러스만의 차별적 AI보안 기술 브랜드

Deep Fake 탐지 기술로 위변조 음성을 판별하는 **Anti-Deep Voice**
LG AI 연구원의 초거대 AI 'EXAONE' 기반으로 서버 통신 없이 안전하게 스마트폰 안에서 구동 되는 **On-Device AI**
국방용 보안 인증 수준의 세계적인 PUF(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을 독점 제휴한 **양자보안(PQC)** '23년 7월~'27년 12월

사용금 수십만원 캐시백, 무이자 할부 등 합리적 소비 유도

카드사 내수촉진 전략

우리카드

신규 가입 시 최대 37만 환급
경품·무이자·정기결제 혜택도
자동납부·해외결제 캐시백 제공
숙박 플랫폼 제휴로 할인 확대

우리카드가 신규 가입 혜택을 확대하면서 소비 촉진에 나섰다. 카드사용금액을 수십만원씩 환급해주거나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숙박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여행객 수요도 확보 중이다. 이달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2'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 금액의 최대 37만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다음달 31일까지 카드의정석2를 발급하고 우리원페이로 19만원 이상 결제하

자동납부 모아모아 캐시백 이벤트

전기요금, 가스요금, 학부모부담금, 구독서비스까지!
최대 5만원 캐시백 모아 드려요.

우리카드 자동납부 모아모아 캐시백 이벤트 행사 이미지.



/우리카드

면 19만원을 캐시백한다. 이어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30만원 이상 이용하면 최대 10만원을 환급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는 매월 3만원 이상 결제 시 1만5000원, 자동납부·정기결제는 최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카드의정석 ▲텐 ▲에브리포인트 ▲에브리 디스카운트 등 3종 가입 고객은 최대 25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식은 카드의정석2와 마찬가지로 우리원페이 결제금액과 해외 온·오프라인 가맹점, 정기결제 등록 시 차등 제공한다. 이 밖에도 화물복지카드+ 카드로

100만원 이상 사용하면 15만원을 캐시백한다. 과거 카드모집인이 수당의 일부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던 영업방식이 카드사 주도로 이뤄지면서 소비자 혜택이 강화됐다.

경품추첨 혜택도 마련했다. 오는 31일까지 카드의정석2를 10일 이상 사용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및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선물한다. 누적금액 1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포인트 10만원을 준다. 사용 기준액은 하루에 2만원이다. 신용카드의 지속성을 높이면서

소비촉진 효과까지 함께 도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납부 고객 전용 캐시백 행사도 있다. ▲배달 ▲렌탈 ▲통신 ▲모빌리티 업종 내 9곳 가맹점에 자동결제를 등록하면 건당 5000원을 최대 3만5000원까지 돌려준다. 이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학부모부담금 등 필수 지출 영역은 최대 1만5000원까지 캐시백한다.

무이자 할부 혜택도 있다. 백화점과 손해보험, 병원 등에서 최대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최대 1년 까지 부분무이자를 적용한다. 차량정비

와 가구·가전, 대학등록금 등 뭉치돈이 나가는 경우에도 최대 3개월 무이자 할부를 사용할 수 있다.

휴가철 특화 혜택도 마련했다. 아고다와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숙박 플랫폼 3곳과 협업을 통해 할인을 단행한다. 우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 코드를 입력하고 결제통화를 미국 달러(USD)로 설정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 숙박업소 이용 시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아고다와 호텔스닷컴이 10%, 익스피디아는 9%로 책정했다. 국내의 모든 숙소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휴가철을 앞두고 눈여겨보라는 조언이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16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고객의 부담을 낮추는 것은 물론 다양한 혜택으로 즐거움을 드리고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민생회복 쿠폰 12조 풀린다... 간편결제 3사, 고객 선점 전초전

1차 신청 대부분 온라인 집중 예상 포인트 적립·결제 편의성 개선 등 네이버·토스·카카오 마케팅 활발

간편결제 업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앞두고 전초전에 나섰다. '12조원' 달하는 소비쿠폰 발급액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간편결제사는 자사 앱을 통한 소비쿠폰 신청 시 혜택을 공개하고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선점에 힘쓰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간편결제 3사는 오는 21일부터 접수하는 '민생회복소비쿠폰(소비쿠폰)' 1차 신청을 앞두고 사전 알

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자사 앱을 통한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1차 소비쿠폰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며, 간편결제 앱 내 사용도 가능한 만큼 고객 선점에 나선 모습이다.

소비쿠폰은 1차(7~9월)·2차(9~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의 금액이 지역 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 4일 국회회를 통과한 3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가운데 소비쿠폰에 할당된 금액만 12조2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쿠폰은 지난 2020~2021년 지급됐던 재난지원금과 지급 형태가 유사하지만, 사용처를 지역 내 중소기업체로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네이버페이(Npay)·카카오페이·토스 등 사용률이 높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는 21~25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청 대부분이 간편결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간편결제사는 자사 앱을 통한 민생쿠폰 신청 시의 혜택을 공개하고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선점에 나섰다.

네이버페이는 출생연도에 따른 신청일 알림 서비스를 오픈하고 자사 앱을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공될 혜택을 공개했다. 네이버는 민생쿠폰 발급 후 네이버페이 앱을 활용해 결제할 경우 자사의 결제 포인트인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별도로 적립해 준다. 또한 지역화폐나 타사 체크·신용카드로 민생쿠폰을 기발급받은 경우에도 앱 내에 정보를 등록하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알림 서비스와 별개로 수급대상 여부, 거주지 등을 기반으로 소비쿠폰 지급액을 예상하는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서비스를 자사 메신저 앱인 카카오톡 내에 오픈했다. 또한 오는 21일부터는 소비쿠폰 지급 시 별도의 카드 없이도 자사 앱을 통해 현금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페이머니'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지급 및 결제의 편의성도 개선한다.

토스는 알림 서비스 신청 시 기존 자사 앱 내에서 제공했던 신용·체크카드

비교 및 발급 페이지와 연결되도록 했다. 카드 비교 페이지에서는 계열사인 토스뱅크 카드 뿐만 아니라 타 금융사의 제휴 카드도 함께 확인하고, 기존 소비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쿠폰이 정부 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만큼 수수료 등 수익성면에서는 매력적이지 않지만, 이용자 수가 중요한 간편결제 업체에는 신규 고객을 대거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간편결제의 영역이 온·오프라인으로 빠르게 확장 중인 만큼, 본 신청을 앞두고 추가 혜택을 공개하는 등 마케팅도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용산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초고가 평형 수요 몰려

청약 최고 21대 1 경쟁률 기록
용산공원 조망 특화 유닛 관심

서울 용산 유엔사 부지에 들어서는 고급 오피스텔 '더파크사이드 스위트'가 청약에서 최고 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94㎡ 이상 고가 평형에 수요가 쏠린 반면, 일부 중형 타입은 미달되며 온도차를 보였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더파크사이드 스위트 청약에서 총 775실 모집에 1296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은 1.67대 1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전용 183·185㎡로 구성된 5군 펜트하우스 세대에서 나왔다. 2세대 모집에 42명이 몰려 21대 1을 기록했다. 전용 94~105㎡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된 4군 역시 114세대에 395건이 몰리며 3.46대 1로 집계됐다.

이들 4·5군은 분양가가 가장 높은 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대에서 가림막



'더파크사이드 서울' 예상 조감도.

/일레븐건설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보장되는 '용산공원 조망 특화 유닛'이라는 점에서 수요자 관심이 집중됐다.

반면 전용 70~84㎡가 포함된 3군은 30건 미달이 발생했다. 공급이 가장 많은 2군(전용 61~69㎡)은 263세대에 292건이 몰리며 1.11대 1, 1군(전용 53~56㎡)은 162세대에 363건이 접수돼 2.24대 1을 기록했다.

분양 관계자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고급 오피스텔 특성상 청약 자격이 제한적이고, 애초에 경쟁률 자체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망성과 희소성을 갖춘 평형대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일레븐건설이 시행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복합개발 단지 '더파크사이드 서울'의 첫 프로젝트다. 지하 7층~지상 20층, 총 11개 동 775실 규모다.

전 세대에 독일 슈코 창호와 몰테니 다다키친, 인공지능(AI) 로봇 발렛 주차 시스템 등이 적용됐다. 모든 평형에 1.2m 폭의 오픈 발코니도 설치된다.

특히 전용 105㎡는 약 6평 규모의 대형 발코니가 정면에 배치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며, 거실·안방·작은방 모두에서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다. 분양 관계자는 "이는 나인원한남 80평형보다도 더 크게 빠진 구조"라며 "개방감과 조망 측면에서 희소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입주민 어메니티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 로즈우드가 직접 운영하며, 단지 내 상업시설은 신세계백화점이 전용면적 1만6470㎡ 규모로 기획·운영한다.

분양가는 전용 56㎡ 기준 34억6000만원, 74㎡는 45억9600만원, 105㎡는 78억8200만원으로, 공급면적 기준 평당 약 1억4000만원, 실사용 기준 평당 약 2억원대다. '6·27 대출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 계약은 20~21일 이틀간 진행된다.

/전지원 기자 jiw13@

KB국민은행 스타뱅킹 환전서비스 직관적으로 전면개편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고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환전 신청 페이지 내에 ▲환율정보 ▲부가서비스 혜택 ▲보유 외화금액 등 환전에 필요한 정보를 한 화면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UX/UI 등)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KB국민은행은 이번 개편을 기념해 오는 8월 29일까지 KB스타뱅킹 환전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환전의 가치를 높인다! 항공 마일리지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스타뱅킹에서 미화 500불 상당액 이상을 환전하고, 대한항공 마일리지 부가서비스 혜택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환전 금액 구간에 따라 마일리지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양승기 기자

“차키 없이 문 연다”... LG이노텍, 디지털키로 글로벌 공략

2030년까지 연매출 1조5000억 목표 AI기반 위치추적 정확도 30% 향상 아동 감지 기능 탑재, 안전성 강화 초소형 설계로 해외전장 수주 확대

LG이노텍이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을 앞세워 글로벌 차량통신 부품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키를 비롯한 차량통신 부품 사업을 2030년까지 연매출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지난 15일 서울 마곡본사에서 기술설명회를 열고,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의 기술 성능과 사업 전략을 소개했다.

디지털키는 스마트폰만으로 차량 문을 열고 시동까지 걸 수 있는 무선통신 기반 차세대 차량키다. 실물 키 없이도 이용할 수 있어 분실 우려가 적고 편리해 렌터카·카셰어링 확대와 함께 시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키 시장은 2025년 6000억원에서 2030년 3조3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유병국 전장부품사업부장 전무는



LG이노텍 직원이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의 '아동 감지(CPD)' 기능을 시연하고 있다. /LG이노텍

이날 환영사에서 “차세대 디지털키 솔루션”은 LG이노텍의 독보적인 무선통신 기술이 집약된 혁신 부품으로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No.1을 목표로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LG이노텍은 실제 차량을 통한 기술 시연을 선보이며 제품 성능과 편의성을 강조했다.

배성준 편의제어통신 S-W개발팀 팀장이 디지털키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은 채 차량 5m 이내로 접근하자, 별도 조작 없이 차문이 열리고, 차량 옆 모니터에 운전자를 환영하는 문구가 자동으로 표시됐다. 트렁크 앞에서는 발 동작만으로 문이 개폐됐으며, 차량 접근 위치에 따라 앞문과 뒷문이 자동으로 여닫혔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스마트폰이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있어도 오작동 없이 정확히 인식된다”며 “사용자 편의성과 보안을 모두 개선한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LG이노텍은 이같은 ‘정밀 위치 인식’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블루투스 저전력(BLE)과 초광대역(UWB) 통신을 결합해 전파 간섭과 해킹 위험을 줄였으며, 인공지능(AI) 기반 3차원(3D) 위치 추위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정확도를 10cm 이내로 끌어올렸다. 기존보다 위치 인식 정확도가 30% 이상 개선됐다.

남형기 커넥티비티 개발실장은 “회사가 3D 좌표를 학습한 AI를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고정밀 3D 추위 알고리즘을 추가 적용해 스마트폰 위치를 10cm 이내 오차 범위로 정확히 탐지해낸다”며 “기존보다 정확도가 30% 이상 개선되어 업계 최고 수준의 위치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개발한 레이더를 적용해 안전 기능도 강화했다. 아동 감지(CPD) 기능을 통해 차량에 아동이 남겨진 경우 6세 이하 아동의 미세한 호흡을 10초 이

내에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 알림을 전송한다. 유럽 안전 평가 기준(15초 이내)보다 빠른 성능을 보인다.

남실장은 “기존 CPD 장치는 좌석 중앙 변화로 아동 여부를 판단해 가방 등과 혼동하는 오류가 있었다”며 “LG이노텍의 CPD는 레이더로 아동 특유의 미세 호흡을 인식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강제 도어 개방 방지, 후방 충돌 방지,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을 디지털키 솔루션 하나로 구현할 수 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명함보다 작은 크기 안에 BLE·UWB 무선통신 부품과 60여 개 부품, 전용 소프트웨어를 모두 집약했다. 차량 1대에 평균 6개가 탑재되며, 공간 활용도와 설계 유연성이 높다.

호환성도 강점이다. 글로벌 표준단체인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CCC)’의 최신 규격을 적용해 국가와 지형, 차량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iOS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모두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삼성·LG, AI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 ‘쌍끌이’ 현대모비스 “순환경제 전략 지속 강화”

‘에너지위너상’ 나란히 최고상
삼성, AI 하이브리드로 7년 연속 수상
LG, AI 냉장고·세탁기 등 업계 선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제28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에서 나란히 최고상을 수상하며 고효율·친환경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두 회사는 가전뿐 아니라 전장, IT 기기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수상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인공지능(AI) 하이브리드 키친핏 맥스’ 냉장고로 에너지 대상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7년 연속 대상 수상을 기록을 이어갔다. 이 냉장고는 반도체 냉각 소자인 펠티어 소자를 기존 컴프레서와 함께 활용한 ‘AI 하이브리드 쿨링’ 기술로 냉각 속도와 효율을 높였다. 사용 패턴에 따라 작동을 자동 조절해

에너지 소비를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스포크 AI 식기세척기’가 오염도 감지 기반의 ‘AI 맞춤 세척+’ 기능으로 에너지 기술상을, ‘AI 무풍콤보 벽걸이’ 에어컨은 최소 에너지로 제공하는 ‘패적제습’ 기능으로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다. ‘갤럭시 북5 프로’는 저전력 부품과 AI 전용 칩(NPU)을 적용해 전력 효율을 최대 40% 개선해 에너지 위너상을 받았다.

LG전자는 대상 3건을 포함해 총 16개 본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 에너지 대상은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핏앤맥스’ 냉장고 ▲‘트롬 AI 위시타워’ ▲전장부문 탄소 저감 활동이 수상했다.

빌트인 스타일 냉장고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핏앤맥스’는 AI가 사용 시간

을 학습해 냉각 모드를 조절하고, 스마트 인버터 압축기로 1등급 최저 소비전력(29.5kWh/m)을 달성해 에너지 대상과 산업부 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

‘트롬 AI 위시타워’는 국내 최대 용량인 25kg 세탁·건조 기능을 갖췄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동시에 만족시켜 에너지 대상을 받았다.

전장사업본부는 자동차 부품 포장 개선과 물류 효율화로 연간 5840톤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 공로로 탄소중립 대상과 환경부 장관상을 동시에 받았다.

이 외에도 ▲휘센 이동식 에어컨(에너지효율상) ▲인덕션·식기세척기·제습기·정수기 등 생활가전(에너지위너상) ▲그램 Pro 노트북, 코드제로 A9 AI 청소기 등도 효율상·절약상·기술상·CO₂ 저감상을 받으며 고효율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혜민 기자

폐기물 재활용률 93% 달성

현대모비스가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환경 경영을 가속화하며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지속가능성 모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술선도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 경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유럽의 배터리 규제,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의 채굴부터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 이르는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 영향을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지속가능성보고

서 등을 통해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이같은 순환경제에 기반한 환경 경영 노력은 저탄소 원소재 구매 확대, 환경 친화적 소재 개발,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의 노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실제로 현대모비스의 지난해 국내 사업장 기준 폐기물 재활용률은 93%에 달한다. 지난 2022년 77% 수준에서 크게 향상됐다. 현대모비스 창원공장은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국제 검증 기관으로부터 ‘폐기물 매립 제로’ 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조현상, 베트남 주석에 APEC 협조 요청 (HS효성 부회장)

글로벌 경제협력 위한 민간외교 행보

ABAC(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적극적인 민간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HS효성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지난 15일 베트남 하이퐁에서 르영 끄영 베트남 국가주석을 만나 한국과 베트남 경제교류 확대와 APA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회장은 이날 끄영 주석을 만나 베트남이 ABAC 3차 회의 개최국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준데 대해 감사를 전

했다. 이어 오는 10월 열리는 APEC CEO 씨밋에 끄영 주석이 기조 연설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APEC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끄영 주석은 “ABAC는 민간의 목소리를 각국 정부에 전달하며 글로벌 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조 연설자 초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베트남은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한·베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부회장과 HS효성이 투자와 고용 면에서 베트남 경제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왼쪽부터)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르영 끄영 베트남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린 APEC 공식 초청장 전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HS효성

조 부회장은 오는 18일까지 베트남 하이퐁에서 열리는 2025 ABAC 3차 회의를 이끌며 글로벌 통상 이슈를 비롯한 주요 안전에 대해 논의한다.

/차현정 기자

효성중공업, 콘크리트 내구성 강화 기술 개발

내부철근 부식 억제 등 효과

효성중공업이 건축물 수명 연장을 위한 기술 역량을 확보했다.

효성중공업은 콘크리트 내부 철근 부식을 억제하는 ‘콘크리트 내구성 강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모체의 알칼리성을 강화해 탄산화 저항성을 높이고 외부 도료를 통해 수분 및 이산화탄소 침투를 차단하는 이중 복합 기술이다. 콘크리트 탄산화란 공기중의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해 철근 부식을 유발하는 현상이다.

특히 기존 수성 도료 대비 10배 이상 높은 신장률로 외벽 미세균열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바닷가 등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내염 성능도 일반

수성 제품 대비 2-3배 뛰어나 건물 수명 연장에 큰 도움을 준다는 평가다.

효성중공업은 2023년부터 청주대학교, 동남기업과 함께 산학연 공동연구로 콘크리트 내부 강화 기술을 개발해왔다. 여기에 글로벌 도료기업 KCC와 손잡고 콘크리트 외부 도료 기술을 공동 개발해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 기술’을 완성했다. 지난 6월 국내 최고 권위의 콘크리트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기술 인증도 획득했다.

효성중공업은 해당 기술을 광주경안 ‘해링턴 스퀘어 리버파크’를 시작으로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각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결과값을 토대로 전용 품질관리 프로세스도 구축, 더욱 완성도 높은 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hyeon@

“서초구 로컬브랜드 사업 확대… 더 많은 일자리 기회 창출”

인터뷰

박 영 우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대표
늘봄카페 등 고용선순환 모델 구축
플랜테리어 사업 ‘늘풀’ 확장 계획
박 대표 “공공성·수익성 함께 고민”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 박영우 대표가 서울 양재동에 있는 ‘살롱 in 양재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천 카페거리에 있는 양재공영주차장. 여기에 있는 카페 ‘살롱 in 양재천’에 들어서면 인테리어와 가구 등에서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마치 유럽의 호텔이나 레트로 감성이 넘치는 레스토랑에 들어온 느낌이다.

‘살롱 in 양재천’은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가 서초구 내에서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5군데 ‘늘봄카페’ 중 한 곳이다.

“늘봄카페를 통해 바리스타 등 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익금을 다시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으로 활용, 고용선순환 모델로 만들어

가고 있다. 카페는 올해 하반기에 1곳을 추가로 열 예정이다. 물론 지역상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품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살롱 in 양재천에서 만난 서초여성일

자리주식회사 박영우 대표의 설명이다.

2021년 9월에 출범한 서초여성일자리주식회사(서여주)는 서초구가 100% 출자한 상법상 주식회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일자리주식회사’를 두고 있는 곳은 몇군데가 있지만 ‘여성’ 관련 회사는 서여주가 처음이다. 전국에서도 최조다.

박 대표는 2대 대표로 지난 5월 1일부터 서여주를 이끌고 있다.

지자체가 출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벌어서도, 그렇다고 많이 벌어서도 안 된다. ‘적정한 수익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박 대표는 “회사 특성상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공대행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고, 수익사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로컬 브랜드’다. 대표적으로

‘양재아트살롱’과 ‘케미스트리트 강남역 로컬브랜드’ 사업이 있다.

서여주는 봄과 가을, 양재천 일대에서 ‘양재아트살롱’이라는 이름의 프리마켓 등을 통해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에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 축제를 벌일 준비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강남역 뉴욕제과는 90년대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였다. 현재 강남역 9·10번 출구가 바로 그곳이다. 올해 ‘케미스트리트 강남역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특히 9번 출구 주변 상권을 되살리는 사업을 서여주가 진행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K-맛, 멋, 미’를 컨셉으로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해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서여주는 수익사업 중 하나인 ‘꿈이 꿈을 교육’도 관내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리브랜딩할 계획이다.

회사 출범 초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작했다. 수익사업으로 전환한 플랜테리어 사업 ‘늘풀’ 역시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성을 추가로 고민 중이다.

박 대표는 “‘늘풀’은 공공장소를 자연친화적으로 가꾸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는 일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반려동물 보급사업, 공공시설물 연말 트리 제작, 어린이대 대상 가드닝 교육, 반려동물 공급 및 키트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일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유관기관들과의 시너지도 늘 고민이다.

“서여주가 주어진 임무와 미션을 잘 이행하기 위해선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일자리 창출, 일경험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씩 찾아나갈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달라진 생리대 시장… 성분 등 ‘경험 설계’ 경쟁

스타트업, 구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기업, 유기농 라인 확대 등 대응 나서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이후 국내 생리대 시장의 지형이 7년 만에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대기업 제품이 유통과 인지도 측면에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지만, 이제는 성분 투명성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전면에 내세운 스타트업들이 시장의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해피문데이와 라엘(Rael)은 제품 설계부터 고객 접점까지 전방위에서 기존 생리대 산업의 방식과 다른 전략을 채택했다. 두 기업 모두 유기농 인증 원료와 전 성분 공개, 유해 성분 배제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생리주기에 맞춘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충성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2030세대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들 브랜드의 입지는 빠르게 확장 중이다.

해피문데이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사용자 수와 앱을 중심으로 한 월경용품 구독 고객의 재구매율이 90%를 상회하고



피부에 편안한 프리미엄 생리대. /라엘

있으며, 월간 이용자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른다. 제품군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생리대 외에도 유기농 탐폰, 질세정제, 월경통 완화 제품, 생리팬티, Y존케어 라인까지 포함되며, 자사물을 기반으로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월경 경험 플랫폼’으로 전환 중이다.

해외에서 설립된 라엘은 미국과 한국 양국을 동시에 공략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라엘은 미국 내 유기농 생리대 시장에서 아마존 판매 1위를 기록한 이후, 월마트와 타깃 등 대형 유통망

에 입점하며 오프라인 유통에서도 입지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면역 기능 강화 및 피부 진정 기능을 결합한 신제품을 출시하며 ‘헬스케어 뷰티’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 브랜드는 제품 자체의 경쟁력뿐 아니라, 고객 접점에서도 대기업과 뚜렷한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해피문데이와 라엘은 모두 사용자 피드백을 기반으로 제품 개선 주기를 짧게 가져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용자 대상 설문조사 및 테스트를 시행해 제품 기획에 반영한다. 또한 SNS, 커뮤니티, 브랜드 콘텐츠 등을 통해 월경·성건강·여성 라이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넓히며 단순 위생용품을 넘어선 ‘경험 설계’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들도 유기농 라인과 성분 정보 표기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기존 ‘좋은느낌’ 브랜드에 유기농 코튼 커버를 적용한 제품군을 선보였고, LG유니참은 ‘소피 내추럴’ 시리즈로 무염소표백·무형광·무합성향료 제품군을 강화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CCUS 준공식 행사 참석자들이 탄소중립실천 협약서 교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김호석 유회학

금호석유화학, CCUS 설비 구축 완료

연간 7.6만 이산화탄소 포집 가능

금호석유화학이 이산화탄소를 자원으로 전환하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 설비 구축을 완료했다.

금호석유화학은 CCUS 설비 구축을 마치고 준공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의 발전설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CCUS 설비는 최대 가동 시 연간 약 7만 600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

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K&H특수가스의 처리 과정을 거쳐 드라이아이스, 식음료용 탄산을 비롯해 용접 및 절단, 원예 등 농업, 폐수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또한 금호석유화학은 이산화탄소 포집 시설에 직접 투자하여 포집 공정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루 220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특히 금호석유화학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벤처업계, 민간 주도 생태계 연결 ‘맞손’

K-VIP DAY

벤처기업협회 등 3대 단체 연합 기획
‘네트워킹 기반 투자 플랫폼’ 첫발

벤처 관련 3대 단체가 ‘벤처 30주년’을 맞아 민간 주도의 생태계 연결을 위해 더욱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는 지난 15일 서울 여

의도 티오더 본사에서 ‘K-VIP DAY’(Korea Venture Investment Partnership Day)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K-VIP DAY는 벤처 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3개 벤처 단체가 연합해 기획한 네트워킹 행사다. 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팁스(TIPS) 운영사, 엔젤투자자 등 벤처 생태계의 핵심 주체들 간 실질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목적을 갖고 기획했다.

특히 행사는 단순 IR을 넘어 ‘관계 중심의 네트워킹 기반 투자 플랫폼’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협회가 추천해 선정한 유망 벤처·스타트업 7개사가 참여해 자사의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송병준 벤처협회장은 “30년 벤처 역사를 함께 써온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 ‘연결’이라면서 “K-VIP DAY”가 그런 만남의 출발점이자 미래 협업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SK네트웍스

여름맞이 대규모 프로모션

SK네트웍스가 보유 사업들을 통해 고객의 여름 일상을 시원하게 책임질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SK네트웍스는 호텔, 웰니스 가전, 자동차 정비, 중고폰 유통 등 본·자회사의 다양한 사업별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16일 밝혔다.

SK인텔릭스의 헬스 플랫폼 브랜드 SK매직은 오는 8월 31일까지 ‘쿨 써머 이벤트’를 열고, ‘윈코크 플러스 얼음물 정수기’ 등 여름철 인기 제품의 렌탈료를 최대 18개월간 반값으로 지원한다.

SK스피드메이트는 AXA손해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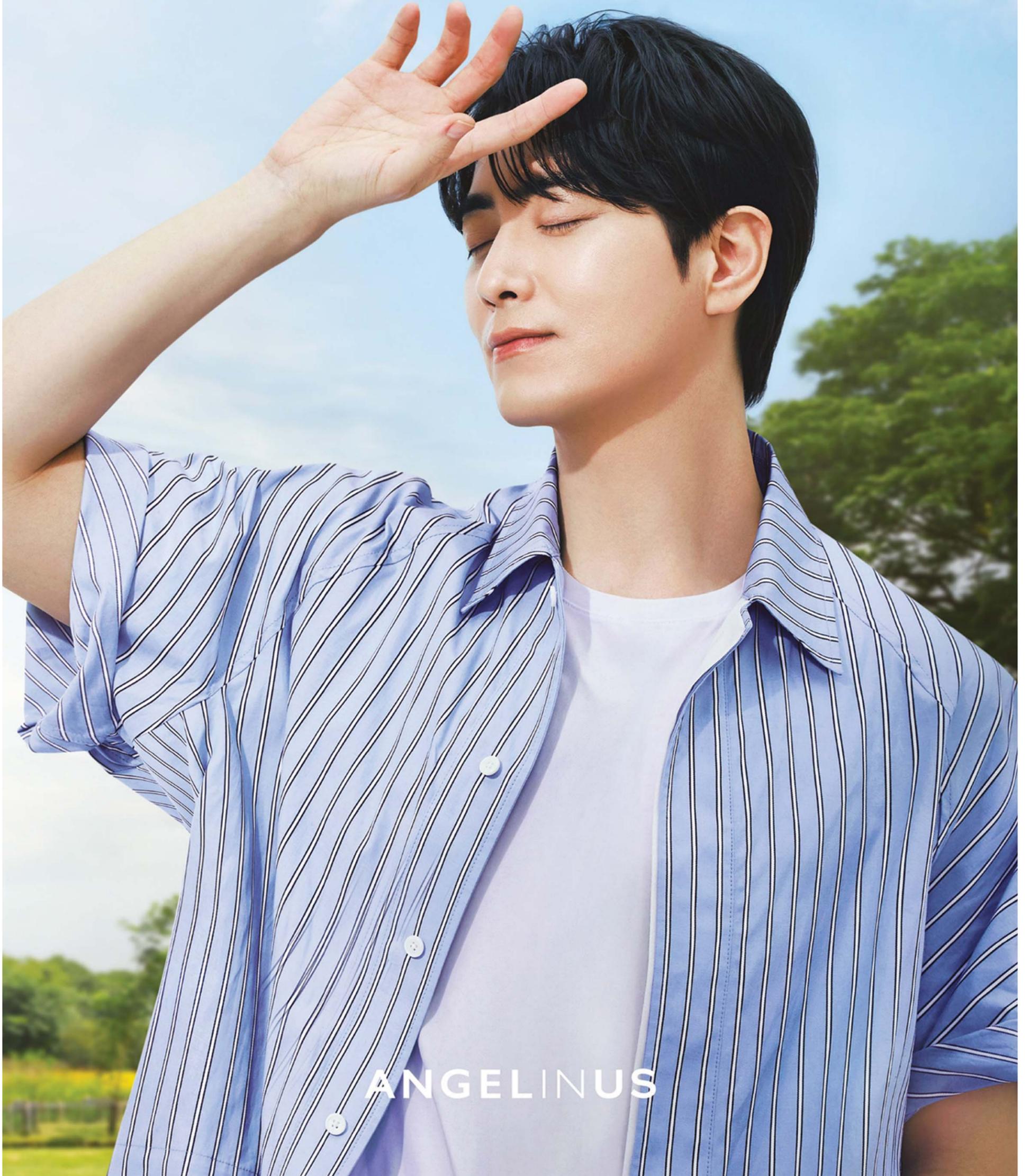
과 함께 장거리 운전이 많은 여름 휴가철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오는 10월 말까지 ‘안심 차량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

위커힐 호텔앤리조트는 오는 9월 초까지 야외 수영장 ‘리버파크’와 연계한 서머 패키지를 선보이며 도심 속 완벽한 ‘풀캉스’를 제안한다. 이와 함께 위커힐을 대표하는 6곳의 레스토랑에서는 ‘여름 보양 미식의 완성’을 주제로 시즌 한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ICT 리사이클 기업 민트는 갤럭시 Z7 출시에 맞춰 이달 22일부터 중고폰 보상 이벤트를 시행해 고객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할 계획이다.

/차현정 기자

Bright Sunshine with
AMERICCINO ❄️



ANGELINUS

李 정부 첫 장관 임명 배경훈, 민간주도 R&D 생태계 혁신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오는 9월 중 혁신방안 수립 계획 권역별 현장 방문해 직접 소통 나서

정부가 오는 9월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을 앞두고 실제 연구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지역별 연구현장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민간자문단을 꾸려 R&D 혁신방안 논의도 진행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R&D 혁신에 대한 국민 한 명 한 명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세종대 물리학과 천승현 교수(발제)를 비롯해 신진·중견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30여명이 참석해 새 정부의 기초연구 정책 및 R&D 혁신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 수석도 함께했다.

과기정통부는 R&D 투자 확대와 함께 투자의 질과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가칭)'을 9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여러 차례 R&D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연구현장에서는 문제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공급자적인 시각에서의 R&D 기획 및 관리, 부정행위 방지를 명목으로 한 과도한 행정 부담, 예측하기 어렵고 불안정한 과제 중심 재정지원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연구현장의 체감도는 낮은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탈피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은 문제 발굴부터 원인 진단, 대안 도출의 전 과정에서 민간이 중심이 돼 현장과 직접 소통하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번 IBS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첫 시작으로, 권역별로 여러 연구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가칭 진짜R&D 추진위원회)을 구성하고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온라인으로도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R&D'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존 단방향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

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국민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그간 정부 주도의 R&D 추진에서 탈피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의 단계부터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R&D 기획·투자·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구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배경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날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다.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배 후보자가 처음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AX 기반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구축

연간 약 700톤 밀웬 생산 계획 사육 단계별 생산 공정 자동화 곤충 품질·생산량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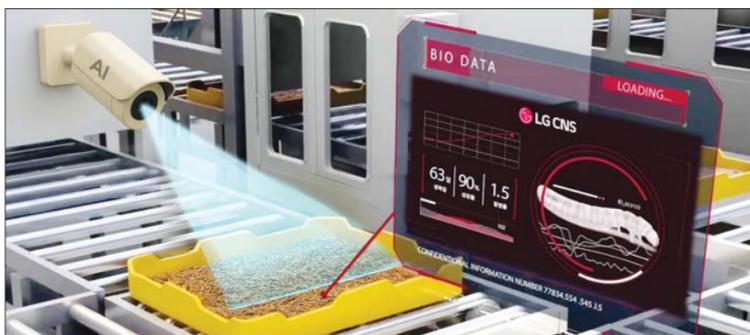
LG CNS가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구축 사업에 나선다.

LG CNS는 16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주최한 곤충산업 거점단지 착공식에서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구축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강원 춘천에 조성되는 곤충산업 거점 단지는 밀웬 등의 곤충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스마트팩토리팜이다. 이 사업에서 LG CNS는 ▲AX 기반 생산 운영 관리·통합 관제 시스템 ▲AI 생육 관리 시스템 ▲곤충 사육·사료 제조·환경 제어 설비 자동화 등을 맡는다.

회사는 올 연말까지 곤충 스마트팩토리팜을 만들어 연간 약 700톤의 밀웬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양산 체계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LG CNS는 "AX 기반의 생산 운영 관리·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최적의 곤충 생산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사육·검사·이송·환경설비 등 전 생산 공정



LG CNS가 미래 신성장 기술테크 분야로 떠오르는 곤충산업의 생산 공정을 디지털·자동화한다. /LG CNS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최적의 생육 환경과 가동 조건을 도출하고, 사육 단계별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 무중단 스마트팩토리팜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전체 곤충 생산 주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제어해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LG CNS는 AI 생육 관리 시스템으로 곤충의 품질과 생산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병들거나 죽은 곤충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골라내다 보니 관리 개체 수가 수천, 수만 마리로 늘어날 경우 품질 관리가 어려워 대량 사육에 한계가 있었다.

LG CNS는 비전 AI 기술로 곤충의 성장 단계를 모니터링해 최적의 출하 시점을 산출하고, 곤충의 색상, 움직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불량 개체를 판별한다.

LG CNS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번 사업을 통해 미래 곤충산업을 선도하는 'K-곤충 표준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곤충 사육 플랫폼을 전면 국산화하고, 코드, 용어, 지표 등 모든 제조 기준 정보를 표준화로 통합 관리해 향후 공장 신설 시 유연한 확장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LG U+, AI 스팸차단 건수 1.4배 늘어

(5개월간)

스팸문자 수신 신고건수도 65%↓ 차단해야 할 문구 상시 업데이트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기반 스팸 차단 시스템 고도화 결과 스팸 차단 건수가 5개월 만에 약 1.4배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끼 문자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범죄자들이 공공기관이나 금융사·택배사 등을 사칭해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누르게 하거나 가족으로 위장해 송금을

유도한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등 관심이 높은 내용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대내외 데이터 통합 분석·대응 체계인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에 미끼 문자를 구별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솔루션을 도입했다. 먼저 AI에 누적된 스팸 문자 데이터와 최신 트렌드를 학습시켜 차단해야 할 문구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동시에 문자 발신번호가 조작됐는지, 해외에서 보냈는지 등을 분석해 차단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카드 배송'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를 분석했을 때 발신번호가 조작되고 해외에서 보냈다면 스팸으로 걸러진다.

이 솔루션은 지난 2월부터 적용됐다. 도입 전인 1월과 비교했을 때 지난 달 기준 스팸 문자 차단건수가 약 1.4배 늘었다. 실제로, 고객의 스팸문자 수신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약 6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갈수록 AI 성능도 개선되면서 AI의 실시간 자동 차단 비율도 8배 늘어났다. /김서현 기자

KT, 미디어 플랫폼 협력으로 시너지 확대

KT스카이라이프-KT HCN에 고도화된 셋톱박스 공급

KT가 그룹사 간 미디어 플랫폼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미디어부문 시너지 확대에 나섰다 16일 밝혔다.

KT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 사업자 KT HCN에 인터넷 전송 방식 기반의 고도화된 셋톱박스를 공급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KT스카이라이프와 KT HCN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화질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기술 전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위성방송 및 케이블TV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 KT HCN은 이

번에 각각 '아이핏TV(ipit TV)'라는 명칭의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기존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수준의 콘텐츠와 기능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KT의 지니TV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인공지능 기반 추천 및 검색, 모바일 연동 시청,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 등이 그대로 적용됐다. 셋톱박스도 한층 작고 가벼워졌으며, 대기 전력 소모가 줄고 부팅과 채널 전환 속도도 빨라졌다.

기존 KT스카이라이프와 KT HCN 가입자는 각사 고객센터나 매장을 통해 아이핏TV를 신청하면 IPTV 수준의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KT 기술혁신부문 Decision Intelligence Lab장 이세정 상무가 K 데이터 얼라이언스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 /KT

KT, 7개 기관과 '韓 AI' 데이터 협력 강화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

KT는 16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에서 'K 데이터 얼라이언스' 협약식을 열고, 국내 주요 기관과 한국형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KT를 비롯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두산디지털이노베이션, 아이스크림에듀, 중앙일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글학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했다.

KT는 얼라이언스 주관사로서, 한국어 고유 표현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이 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각 기관은 보유한 데이터를 가공·구조화해 AI 학습에 활용하고, 상호 협력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한국형 AI용 데이터 구축 ▲도메인별 AI 활용 사례 개발 ▲성과 공유 및 대외 확산 ▲인문·사회 분야 연구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종투사 인가, 마지막 기회 잡아라” 증권사, 제도개편 앞두고 속도전

미래에셋·한국투자 IMA요건 갖춰 TF 구성 등 하반기 중 신청할 듯
키움 등 4곳, 발행어음 인가 박차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편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인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기자본 8조원을 넘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연내 신청할 것으로 보이며, 키움증권·신한투자증권·하나증권·메리츠증권 등 4조원대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인가를 위해 일제히 종투사 지정 신청을 마친 상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IMA 인가 요건인 자기자본 8조원을 충족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두 곳뿐이다. 두 회사 모두 하반기 중 IMA 인가 신청을 구상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TF를 구성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IMA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강혁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 5월 진행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IMA는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언급한 바 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운용 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등 관련 준비를 이어오고 있다. 다만 IMA 인가 신청은 이달 1일부터 시작됐지만, 두 곳 모두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



한국투자증권 본사.



미래에셋증권 본사.

/각사

악된다.

업계는 두 회사의 연내 IMA 인가 신청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IMA는 고객 예약금을 바탕으로 중장기 자금 운용이 가능한 계좌로, 기업금융과 리테일 운용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이 기대된다. 특히 모험자본 투자 의무가 도입될 예정인 만큼, 조기 인가를 통해 운용 방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4조원대 증권사들은 연내 발행어음 인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이 종투사 지정과 함께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삼성증권은 종투사로 지정된 상태에서 발행어음 인가만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까지 자금 조

달이 가능해, 중형사 입장에서 자금운용력 확보 수단으로 꼽힌다.

업계에선 이번 인가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이 크다. 제도 개편 이후에는 종투사 지정 요건이 ‘신청 시점 충족’에서 ‘최근 2개 연도 연속 충족’으로 바뀌고, 운용 규제도 강화된다. 일부 증권사는 요건 충족 여부나 사업성 등을 검토한 끝에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인가 절차가 완료되면 종투사를 통한 신용공여 한도는 총 145조원 수준이며, 이 중 최대 36조원 가량이 모험자본으로 유입될 수 있다. 증권사들은 인가 심사에 대비해 내부통제 체계 정비, 이해상충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절차상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테슬라 집중... ‘TSLL’ 1.1억 달러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서학개미, 상반기에 20억 사들여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도 매수세

서학개미(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테슬라와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 주식을 놓고 줄타기를 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8~14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X’ (TSLL)로 1억1032만달러(1526억원)를 사들였다. 이 종목은 테슬라의 하루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같은기간 테슬라의 주가는 7.81%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개미들의 투자 장바구니를 가장 많이 채운 종목도 테슬라다. 상반기에만 23억3140만달러어치를 사들였다. 다음으로 많이 담은 종목도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볼 2X’ (19억1678만달러)다.

개미들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해졌다.

같은기간 서학개미들은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5626만달러(778억원), 서클은 5051만달러(699억원)씩 사들였다. 서클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유일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상장 이후 가파른 주가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다. 상장 첫날부터 12거래일 동안 216.53% 폭등했으며, 단기간에 서학개미들이 많이 사들인 종목으로도 꼽힌다. 서클은 6월 상장임에도 상반기 순매수 상위 4위(6억397만달러)에 이름을 올렸다.



GhatGPT로 생성한 ‘비트코인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이미지.

미국 하원은 지난주(14~18일)를 ‘크립토워크’로 공식 지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규제 정비화 기대감에 비트코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신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iM증권 리서치본부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크립토워크 지정으로 가상자산 제도 정비 가속화가 예상된다”며 “표결을 앞둔 3개의 주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 규제 불확실성 감소로 디지털 자산 자금 유입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스테이블코인 밸류체인으로 묶여 있는 로빈후드(1530만달러)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1415만달러)도 사들였다. 미국 재무부 산하 차입자문위원회(TBAC)가 인용한 스탠더드차타드의 2028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전망치는 2조달러(약 2765조원)다. /신하은 기자 godhe@

LIG넥스원·두산 등 5곳 MSCI지수 편입

한화투자증권, 8월 정기변경 보고서
LGI노텍·CJ제일제당 등 제외될 듯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HD현대마린솔루션 등 5개 종목이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지수에 새로 편입되고, LG이노텍, CJ제일제당, SKC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화투자증권은 ‘MSCI 8월 정기변경’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리뷰 결과는 한국시간 기준 8월 8일 오전 발표되며, 지수 리밸런싱

은 8월 26일 증가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편입·편출 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준일은 7월 15일부터 28일 중 하루로, MSCI가 임의로 지정한다.

한시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LIG넥스원, 두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은 지난 리뷰 기준일인 4월 17일 대비 주가가 각각 88~117% 상승하며 시가총액이 편입 기준을 충족했다”며 “스몰캡에서 스탠다드 지수로 이동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HD현대마린솔루션은 기존에는 유동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편

입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그는 “2대주주 KKR이 지난 5월 지분 9.5%를 매각하면서 유동시가총액이 상승했고, 유동시가총액도 2조4000억원으로 컷오프 기준(2조1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이노텍, CJ제일제당, SKC 등 3개 종목은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한 연구원은 “편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스탠다드 지수에서 스몰캡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개인형 연금잔고 20조 돌파

지난해 17.1조에서 17.6% 급증
40~50대 가입·ETF관심 높은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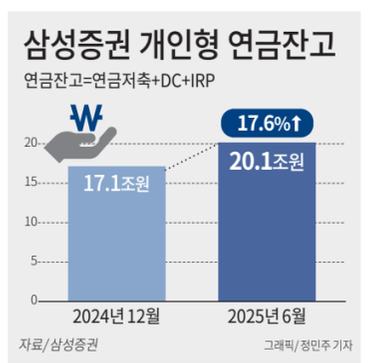
삼성증권의 개인형 연금 잔고가 20조원을 넘어서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40~50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고가 크게 늘었다.

16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연금저축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한 총 개인형 연금 잔고는 올해 6월 말 기준 2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7조1000억원대에서 약 17.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연금 잔고도 21조3000억원대에서 24조3000억원대로 14.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형 연금 중 ▲연금저축 잔고가 19.1% ▲DC형 14.9% ▲IRP가 18.3% 각각 늘었다. 특히 40~50대 고객의 개인형 연금 잔고는 지난해 말 10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13조1000억원대로 약 20.6% 증가하며 눈길을 끌었다.

상품별로는 상장지수펀드(ETF)가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 ETF는 같은 기간 잔고가 6조8000억원대에서 9조원 규모로 약 31.7% 증가해, 상품별 잔고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퇴직연금 전체(DB·DC·IRP) 잔고



기준으로도 삼성증권은 12.3% 증가해, 퇴직연금 잔고 1조원 이상 증권사 중에서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삼성증권의 연금 잔고 고속 성장 배경으로는 가입자 중심의 연금 서비스가 꼽힌다. 2021년에는 업계 최초로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가 무료인 ‘다이렉트 IRP’를 선보여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의 변화를 이끌었고, 가입 서류 작성과 발송이 필요 없는 ‘3분 연금’ 서비스로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업계 최초로 연금 전문 상담을 위한 별도의 연금센터를 신설해 서울·수원·대구 등 3곳에서 운영 중이다. 이 센터에는 PB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개인 가입자 대상의 맞춤형 상담은 물론 퇴직연금 도입 법인 대상 설명회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증권 연금센터는 지난해에만 약 200여 건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원관희 기자 wkh@

KCGI운용, 채권운용팀→운용본부 격상

홍사욱 신임 본부장 영입

KCGI자산운용이 기존 채권운용팀을 채권운용본부로 격상하고 홍사욱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을 본부장(상무)으로 영입했다.

16일 KCGI자산운용에 따르면 회사는 채권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운용 기능을 체계화하는 한편 상품 라인업 확대를 통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직 개편과 인재 영입을 단행했다. 신임 홍 본부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대표채권형 펀드의 하나인 ‘미래에셋솔로몬장기국공채펀드’ 등을 운용하며 안정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성과를 보였다.

KCGI자산운용은 홍 본부장에 대해 “자산배분 전략뿐 아니라 글로벌 운용 전략과 리스크 관리 등 다방면의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채권 부문의 상품 개발과

운용 역량 강화를 추진 중인 KCGI의 방향성과 부합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간 액티브 주식형펀드에서 성과를 내온 KCGI자산운용은 종합자산운용사의 위상에 걸맞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급성장하고 있는 퇴직 연금 시장과 연기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구사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KCGI자산운용의 기존 채권형 주력 펀드의 안정적인 성과에 집중하면서 채권 운용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CJ,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 지원 공정위, 65억 과징금 부과·시정명령

TRS 통해 부실 계열사 자본 보증
공정위 “공정경쟁 저해 행위 제재”
CJ “법적 대응 검토” TRS 적법 주장



CJ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활용해 부실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CJ 소속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통해 부실계열사였던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물라인(현 CJ4D플렉스)의 자본 조달을 사실상 보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5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계열사는 2015년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있던 CJ건설과 시물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TRS 계약을 체결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계약처럼 포장됐으나, 실제로는 해당 회사채의 상환위험을 CJ와 CGV가 떠안는 구조였다.

TRS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으로 그 자체로는 합법적인 금융수단이지만, 이 사건에선 CJ 측이 이익 실현 의사가 없고 전

환권 행사도 봉쇄돼 있었던 만큼 ‘신용보강 계약’이라는 내부 표현 그대로, 사실상 보증 행위로 작동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돼 안전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원 덕분에 두 부실 계열사는 시중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650억원(CJ건설 500억원, 시물라인 150억원)을 조달했고, 금리 절감 효과도 각각 31억원, 21억원에 달했다. CJ건설은 이후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상승했고, 시물라인도 4D 영화관 장비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는 방식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경쟁사에 대한 기회의 제

한으로 이어진다”며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등 외형상 투자로 위장된 계열사 지원행위까지 규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지원행위 수단의 형식·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같은 시기 체결된 CJ푸드빌의 영구전환사채(500억원) 관련 TRS 계약에 대해서는 당시 신용등급과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심의 절차를 종료하고 제재를 면제했다.

CJ는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적극 해명하며 추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K푸드+ 수출지원 위해 민관협력 모델 발굴

농식품부, 2028년부터 사업화 착수

정부가 ‘K푸드+’ (농식품에 스마트팜 등의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를 국제 농업협력사업(공적개발원조·ODA)의 한 모델로 키운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K푸드+의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해 ODA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ODA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업분야 개발 협력을 말한다. 간담회에는 13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등이 함께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단체는 ODA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오는 20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 정부가 ODA를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K푸드+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K푸드+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 농업소득 증대,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저소득 대학생 160명에 장학금 3.2억 지원

가스공사, 1인당 200만원씩 지급

한국가스공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 LnG(Leading & Growing) 장학 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전국 저소득 및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160명에게 1인당 200만 원씩, 총 3억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LnG 장학 사업은 ‘서로 이끌며 함께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1999년 ‘청년 장학금’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가스공사의 대표 장학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업체 저소득층과 사회적 배려계층 대학생 1300여 명에게 약 3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왔다.

올해는 선발 기준을 보다 세분화해 ▲전국 대학 재학생(110명), ▲대구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25명),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참여 대학생(25명) 등으로 나눠 장학생을 모집한다. 이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층의 자발적 봉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소정의 심사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발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고 있다”며 “LnG 장학 사업이 잠재력 있는 미래 인재들의 꿈을 실현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술·혁신 기반 농식품창업 생태계 조성”

농식품부,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 투자유치·판로 확대 등 기회 제공
산업 창업 활성화 위한 지원 강화

정부가 기술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개최사를 통해 “AFPRO 2025는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업기업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기술과 창업이 맞닿은 지점에서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며 “다가오는 2025 APEC 제10차 식량안보 장관회의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미령(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에 참석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농식품부

송 장관은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전시부스를 참관한 뒤 현장관계자들의 애로사항 및 제언 등을 수렴했다.

AFPRO 2025는 농식품 분야 유망 창업기업의 기술을 전시·홍보하고, 투자유치, 판로확대,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농식품 스타트업 특화 창업박람회다. 농식품부가 주최

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코엑스, 농협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 개의 창업기업과 투자기관, 유통사 등이 참여한다. 기술 전시를 비롯해 상담회, 토크콘서트, IR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해수부, 한·일 7박 ‘크루즈 체험단’ 모집

무작위 추첨 30팀 선정

해양수산부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2025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는 30

팀(60명)의 체험단은 오는 9월5일 부산항에서 11만4000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에 승선한다.

국내 속초와 일본의 무로란, 쿠시로, 하코다테를 관광한 뒤 9월12일 부산항으로 돌아오는 7박8일 일정

(240만 원 상당)의 크루즈 여행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단은 승선 비용 일부와 기항지 관광 비용 등 1인당 90만 원의 경비를 부담한다. 체험단 응모를 원하는 국민은 해수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5일 해수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RE100 산단’ 조성… 연내 특별법 제정

산업부, 범부처 TF 출범, 첫 회의 개최

정부가 연내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조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1차 회의는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했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부처의 소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원칙적 규제 제로(0)의 기업 환경 ▲매력적인 교육·정주 여건 ▲강력한 전기요금 인하 방안 등 첨단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 제정안 마련을 목표로 산업부, 국토부 공동 주관으로 격주마다 TF 정례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문신학 1차관은 “수출 기업에 필요 요소가 되어가는 RE100을 규제가 아닌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발굴, RE100 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2025
JIWOO
Production
Presents

Musical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Welcome to the Hyunam-Dong Bookshop

“오답투성이 인생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2025.03.01 ~ OPENRUN 루미나아트홀

원작 황보름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클레이하우스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연출 박예슬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주미영

조명디자인 손정은 | 음향디자인 안형록 | 의상디자인 백은경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제작PD 문혜인 | 무대감독 박민서 | 컴퍼니매니저 소우현

출연 서지아 김재은 표혜미 서은교 | 황수빈 최우성 석우성 이규진 | 한재우 김도경 공민규 김록현 | 박나연 현지수 오미준 김정은 | 임영식 이선 박형석 최윤재

주최·제작 극단지우 협찬 yes24 사파르게절 티켓문의 NOL ticket 공연문의 02.332.4902

포항시, 블루밸리 산단 ‘첨단전략산업 거점’으로 육성

블루밸리 산단 분양률 약 60% 포스코퓨처엠 등 40여개사 입주
그레핀스퀘어, 올해 10월 준공
미래 신성장산업 견인 기대



블루밸리국가산단 조감도.

포항시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주력 산업의 위축 속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전략 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AI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산업 기반을 선제적으로 조성해 미래 100년을 내다 보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지난 2009년 자동차·선박·기계 등 부품소재 산업 육성을 목표로 조성됐지만,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포항시는 이차전지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계획 변경과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그 결과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핵심기업이 잇따라 입주했고, 산단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3년 7월 에코프로는 블루밸리산단 내 약 21만 평 부지에 5년간 2조원을 투자해 2028년까지 양극재 밸류체인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며, 11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블루밸리산단 분양률은 약 60% 수준으로, 일부 대규모 투자 철회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항시는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등 40여 개 기업의 입주를 이끌어냈고, 이들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2조4000억원, 예상 고용 인원은 2600명에 달한다. 향후 MOU를 체결한 기업들까지 포함할 경우, 누적 투자 규모는 5조1,000억원, 고용 인원은 3300명까지 확

대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10월 준공을 앞둔 그레핀스퀘어는 460억 원을 투자해 그레핀 필름과 모듈을 생산하며, 국내 최초 그레핀 대량 합성 기술의 상용화와 함께 ‘그레핀 밸리’ 조성을 통해 포항의 미래 신성장산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약 28만㎡ 부지에 1918억원을 투입해 ▲기업 집적화 ▲부품소재 성능평가 ▲연료전지 실증 코어로 구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30여 개 수소기업 유치와 1만명 이상 고용, 8000억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루밸리산단 입주 기업에는 R&D 및 인력 양성 지원은 물론, 법인세와 소득세 5년 전액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김해시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

김해시가 원도심 지역 주민들의 체육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관 건립에 나선다. 이번 체육관은 부원동 217-11번지 일원에 지하2층부터 지상2층까지 연면적 2942㎡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육관 내부에는 5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비롯해 다목적 강당, 헬스장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울릉군-한전 안정적 전력 수요관리 협력

울릉군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5일 여름철 전력수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를 비롯해 울릉군의회 이상식 의장과 군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한국전력공사는 ‘수요관리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며 울릉군청과 진행 경과를 공유 ▲하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한 연락체계 구축 ▲안정적인 전력 수요 관리를 위한 상호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울릉(경북)=김진근 기자

전남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 선정 15개 시도,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 논의

3건 선정... 총 846억 사업비 확보
해양 탄소중립·선박 연구개발 거점



목포 남항 연구인프라 조감도. /전남도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5년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공모사업에 3건이 연이어 선정돼, 총 846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선정된 사업은 ▲녹색해운항로 구축 탄소중립 선박연료 공급기술 개발(265억원) ▲친환경 연료화재폭발 안정성 평가 및 대응설비 개발(302억원) ▲상반회전 추진시스템 기반 중대형 선박 전기추진시스템 개발(279억원) 등이다. 이번 선정으로 2020년부터 역점 추진한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전남이 해양탄소중립과 미래형선박 핵심기술을 선도할 연구개발 거점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목포 남

항 일원에 친환경 연안선박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전기추진 차도선,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과 실증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 ▲친환경선박용 전기추진 시스템 시험평가 기술개발 등 친환경선박 선도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친환경연료추진연구센터’도 목포 남항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어 연구개발 중심지로서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제266차 시도대표회의의 회는 울산 문수컨벤션에서 지난 15일 제266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 권한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울산시구군의회와 지방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전국 15개 시도대표 회장단을 비롯해 울산지역 기초의회 의장, 울주군의회 의원, 지방의정보사상 수상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보 및 사무기구 조직체계 개선,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 기한 연장, 정책

지원관 기능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각 지역 현안을 담은 건의안 3건도 채택됐다. 강원대표회장이 제안한 ‘민간인 출입 통제선 복상 촉구 건의안’과 충북대표회장이 제안한 ‘선거지원 인력 처우개선 건의안’, ‘헤이그 특사 이상설 선생 등 서훈 등급 상향 촉구 건의안’ 등이다. 이들 건의안은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기호, 김대영, 이수영, 손옥선, 박기홍 의원에게 대한민국지방의정보사상이 수여됐다. 최길영 울산시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회의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시, 소상공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3무 희망잇기’ 금융 지원 프로그램

부산시는 17일부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마이너스통장 대출 보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시행된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보증료 면제, 한도 심사 생략, 방문 신청 불필요라는 3가지 무료 혜택이 핵심이다. 새로운 희망잇기 통장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과 체크카드를 연계해 운영자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비대면 신청 절차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체크카드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업력 6개월 이상, 나이스(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당기 매출액 1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3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신용평점 595점 이상은 구 신용등급 1~7등급에 해당하며 전체인구의 95.5%가 포함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부산은행 모바일뱅크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 과정을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달성군, 대구 첫 ‘무료 워터페스티벌’ 열어

‘달성 청년 워터플레이스’

달성군과 (재)달성문화재단달성문화도시센터는 오는 26일 강정보디아크 광장에서 대구 최초의 무료 워터페스티벌 ‘달성 청년 워터플레이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워터밤’ 형식을 차용해 시원한 물놀이와 청년 감성을 결합한 여름 야외 페스티벌로,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 축제’라는 취지 아래 달성군 청년들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전반에 참여했다. 행사무대는 ▲물총페스타 ‘달성청년 페스타!(BLUE)’ ▲청년 장기자랑 ‘너를 보여줘!(RED)’ ▲메인 공연 ‘꿈에그린콘서트(GREEN)’ 등 세 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메인 공연에는 인

기 아티스트 프로미스나인, 그레이, 래원을 비롯해, 달성군 출신이자 2025 한국 레드볼 국가대표 선발전 우승자인 팝핀매트가 무대에 오른다. 축제는 오후 5시 ‘청년구출대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오후 10시 워터쇼와 레이저쇼가 어우러진 피날레 무대로 여름밤의 열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대행사와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청년이 운영하는 ‘청년플리마켓’ ▲지역 소상공인 중심의 ‘푸드트럭’ ▲무더위를 식힐 ‘서핑체험’ ▲추억을 남길 ‘캐릭캐처’ 등 무료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40m×30m 규모의 대형 그늘 쉼터와 쿨링존도 조성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달성(대구)=김준환 기자 kih9@

전남도-aT 베트남서 130만弗 수출협약

전남도 동남아시아사무소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5K(케이)-Food(푸드) 지역 특화상품 수출 설명회에 참여, 13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호치민지사가 주최했다. 전남도를 비롯해 호치민에 대표사무소를 둔 전국 9개 시도 대표사무소가 참여했다. 국내 농식품 수출기업 30여 개사와 베트남 바이어 50여명이 참석, 1대 1 수출상담 형식으로 진행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정부 저출생 정책에도 실적하락... 유아동 시장 '보릿고개'

**아기방컴퍼니 상반기 영업익33% ↓
꿈비 1분기 24억 영업손실 기록
토박스코리아 1분기 적자 전환**

“저출생 정책, 새 정부마다 있어
각각 회사 내부 경쟁력 키워야”

새 정부의 저출생 대응책에 따라 유아동용품 브랜드 관련주가 상승하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정작 대부분의 기업은 올해 상반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아용품 및 용품 사업을 전개하는 아기방컴퍼니의 올해 상반기 영업 이익은 약 1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33.5% 가량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약 450억원에서 444억원으로 1.36% 줄었다.

최근 아기방컴퍼니는 새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올해 초 출생아 수까지 반등 조짐을 보이면서, 유아동 패션 및 용품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 것이



서울시내 쇼핑몰을 찾은 시민이 유아동 옷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라는 기대감이 퍼졌다.

하지만 시장 기대감과 달리 관련 기업들의 실적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리미엄 유아용품 기업 꿈비 역시 아기방과 함께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타며 수혜를 입었지만, 막상 올해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꿈비는 1분기 약 24억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7.5%로 적자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같은 기간 수익성 악화로

당기순손실이 약 19억원에서 78억원으로 약 310% 급증했다.

유아동 전문 패션기업 토박스코리아도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토박스코리아 1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2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억 5000만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은 약 93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15% 감소했다.

지난 2017년 기업 상장 성공한 토박스코리아는 지난 2012년 매출액 20억원에서 2015년 124억까지 성장한 유망 기업이었다. 그러나 매출액이 지난

2022년 약 512억원에서 2023년 486억원, 2024년 446억원으로 3년 연속 떨어지며, 성장 한계에 부딪혔다.

일각에서는 기업 펀더멘털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 만으로 유아동 업계 훈풍을 기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출생 정책은 매년 새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있었다”면서 “그때마다 유아동 관련 기업의 주가가 오르내리곤 했다. 단순 외부 변수만으로 시장 성장 모멘텀을 기대하기 보다는, 각각 회사 내부에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패션업계 관계자는 “최근 백화점 채널에서도 유아용품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나서는 만큼, 기업이 유통 채널에 입점하지 않고 단일로 경쟁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며 “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고 있는 국면이 전환되지 않는 이상, 저출생 관련 정책이 유아동 시장 자체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온, 온누리 빵빵 민생회복 이벤트 모바일 앱 이미지. /롯데온

롯데온 시장 먹거리 30% 할인 '온누리 빵빵 민생회복'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이달 23일까지 온누리 전문관 '온누리스토어'에서 '온누리 빵빵 민생회복' 행사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온누리 빵빵 민생회복은 서울 안동북문시장,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영천시장, 수유재래시장 등 전통시장과 협업해 각 시장의 대표 먹거리를 최대 30% 할인가에 선보이는 행사다. 대표 상품으로 북문시장의 '안동한우갈비 밀키트'와 영천시장의 '최가상회 국내산 수제 떡갈비 세트' 등이 마련됐다.

롯데온은 북문시장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주요 경품으로 ▲순금카드(1명) ▲안동한우 밀키트(2명) ▲덕자네 배추김치(1명) ▲디지털 온누리상품권(20명) 등이 준비됐으며, 응모는 이달 31일까지다. /안재선 기자



뉴욕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밀키스 부스에서 관람객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 /롯데칠성음료

美 뉴욕 타임스퀘어에 '밀키스' 상륙

롯데칠성음료, 제너시스BBQ 협업 K-음료와 K-치킨의 페어링 제안

세계인의 발길이 모이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밀키스가 떴다.

롯데칠성음료는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14일(현지시간 기준) 한국의 대표 유성탄산음료 '밀키스'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밀키스를 알리는 '매콤함이 부드러움을 만나다(Spicy Meets Smooth)'라는 마케팅 캠페인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뉴욕 타임스퀘어는 '세계의 교차로'로 불리는 세계적인 광고 명소이자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땐 밀키스!'라는 콘셉트로 구성된 이번 'Spicy Meets Smooth' 캠페인은 롯데칠성음료와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이 함께했다. 이번 협업은 K-음료와 K-치킨의 대표주자, 밀키스와 BBQ가 만나 K-푸드의 새로운 페어링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높다.

롯데칠성음료는 타임스퀘어 중심에 위치한 '원 타임스퀘어' 건물 외벽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이번 캠페인을 위해 특별 제작된 밀키스 광고를 선보였다.

광고는 치킨, 떡볶이, 라면 등 매운

음식과 밀키스를 번갈아 마시며 매운 맛을 중화한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1등 크리미 탄산(Korea's NO.1 Creamy Fizz)' 문구와 함께 부드러운 우유와 탄산 조합의 제품 특징을 강조했다. 또한 레트로 스타일의 픽셀아트 그래픽으로 구현해 재미요소를 더하고 주목도를 높였다.

이 날 롯데칠성음료는 초대형 옥외광고 이외에도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했다. 타임스퀘어 중앙에 위치한 광장 '파더더피스퀘어'에 밀키스 체험 부스를 설치하고 밀키스 오리지널과 딸기, 포도, 복숭아 등 총 5종의 제품 시음 기회를 제공했다. 더불어 SNS 인증, 제품 맞추기 챌린지, 포토박스 등에 참여하면 굿즈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펼쳤다. 캠페인이 펼쳐진 행사장은 약 20만 명의 방문객으로 가득찼다.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BBQ와의 협업을 발판 삼아 미국 현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매운 치킨과 밀키스의 푸드 페어링을 알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7월 말부터 뉴욕,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LA 등 미국 주요 지역에 위치한 BBQ 매장 250여개 점에서 순차적으로 밀키스 판매를 시작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와인 골라담기' 3종 2만원 이마트, 업계 첫 할인 행사

31일까지 고물가 부담덜기 일환 에스피릿 벨벳 블랑 등 25종 준비

이마트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와인 25종 골라담기' 행사를 진행한다.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와인 25종 중 3종을 택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을 2만원에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마트에 따르면,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스페인, 칠레, 호주 등 다양한 산지의 와인을 사도네이, 까베르네 소비뇽 등 여러 품종으로 준비했다.

대표 상품에는 호주산 '그로우스 게이트 가버네 소비뇽', 칠레산 '타구아 셀렉션 사도네이'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스파클링 와인 '에스피릿 벨벳 블랑'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마트는 고물가 기조와 양극화된 소비 흐름 속에서 초저가 와인 수요가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 이마트의 1만원 미만 와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와인 상품 신장률은 전년 대비 10%를 기록했으며, 객수는 21% 증가했다.

이마트 고아라 와인 구매자(바이어)는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객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와인을 드실 수 있는 와인 골라담기 행사를 업계 최초로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더 많은 고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선 기자

CJ ENM, ESG 평가 종합 'AA등급' 획득

MSCI 진행... 3년 연속 등급 상승세

CJ ENM이 글로벌 ESG 평가기관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진행한 '2025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종합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CJ ENM에 따르면 'AA'는 전체 7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2023년 'BBB', 2024년 'A'를 받은 데 이어 올해 'AA' 등급을 기록하며 3년 연속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

등급 향상 배경으로 인적자본 관리와 친환경 사업 활동 등 체계적인 실행

력이 주요했다는 게 CJ ENM 측 설명이다. 특히, 직원 몸값도 조사,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공식 고충 처리 채널 등 선도적인 인재 관리 체계 운영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J ENM 관계자는 “글로벌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ESG 경영을 추진하며, 업계 전반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의 지속가능성 체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ESG 활동을 기반으로 매력적인 '콘텐츠와 브랜드' 경험을 선보여 더욱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농심 美 LA 갤럭시 홈구장서 '농심데이' 이벤트 펼쳐

농심 미국법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MLS(메이저리그 사커) 축구단 'LA 갤럭시' 홈구장 Dignity Health Sports Park에서 'Nongshim Night' (농심데이) 행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행사는 농심 미국법인과 LA 갤럭시가 지난 2월 체결한 스폰서십의 일환이다. 농심은 미국 현지에서 농심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미국공장이 위치한 LA 지역의 MLS컵 우승팀인 LA 갤럭시와 손을 잡았다. 이번 농심데이는 스폰서십의 메인 이벤트로, 홈구장 내외부에서 농심을 테마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농심은 경기장을 찾은 관객에게 농심 로고가 새겨진 머플러와 가방을 제공하고, 관중석을 가로지르는 전광판에 농심 슬로건(Lovely Life Lovely Food)을 노출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다. 경기장 내부 상설 식음매장 '농심스테이션'에서는 신라면의 맛을 바탕으로 현지 입맛에 맞춘 퓨전 요리 '신라면 톰바 브리또', '신 갤럭시 볼'과 함께, 유명 K팝 스타의 최애 스낵으로 알려진 '바나나킥' 등 다양한 농심 제품 메뉴를 운영했다. /신원선 기자

‘탈모치료제’ 신제품 봇물… 외용제·경구제 등 경쟁 가속화

제약·바이오 업계, 시장 점유율 확대
유한양행 미녹시딜 5% 외용제 선택
현대약품 폼 제형 등 제품군 확장
동아제약 고밀도 제형으로 효과 증대
태극제약 펜형으로 편의성 개선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탈모치료제 시장으로 속속 뛰어들고 있다. 국내 탈모 인구가 증가하면서 탈모를 관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시장이 커져 자발 빠르게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미녹시딜’ 성분의 탈모 외용제가 지속 등장하고 있다. 미녹시딜은 탈모 치료를 돕는 성분으로 두피 내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모근 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전을 갖췄다.

지난 15일 유한양행의 일반의약품 ‘유한미녹펜겔5%’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품목은 제네릭 의약품으로 주성분은 미녹시딜 50mg이다. 18세 이상 남성의 탈모증 치료에 쓰인다. 제형은 무색 또는 연한 노란색의 투명한 겔로 알려졌고, 용법도 모발과 두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환부에만 바르는 방식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국내 제약 업계는 탈모 치료제 시장을 주요 사업 과제로 꼽고 있다.

이다.

이처럼 유한양행의 탈모 치료제 출시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내 탈모 치료제 시장에서는 폼 제형 탈모 치료제가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5월 현대약품과 JW신약은 각

각 ‘마이녹실폼5% 에어로솔’과 ‘마이딜5% 폼 에어로솔’을 선보였다.

현대약품은 기존 탈모 제품군에 ‘마이녹실폼5% 에어로솔’을 새롭게 추가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현대약품은 앞서 마이녹실 액, 마이녹실 겔,

복합 마이녹실 등 다양한 미녹시딜 외용제를 구축해 왔다. 이번 신제품은 알루미늄 캔으로 설계됐고 폼 제형을 구현한다. 도포 시 흘러내림과 끈적임, 두피 잔여감 등이 개선됐다.

JW신약도 ‘마이딜5% 폼 에어로솔’을 출시해 종합 탈모 관리 브랜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경구용 탈모 치료제, 모발 관리 샴푸를 비롯한 화장품 등에서 외용제로 탈모 관리 전반에 걸쳐 브랜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이어 6월에는 동아제약이 바르는 탈모 치료제 ‘카필러스 폼 에어로솔’을 내놨다. 고밀도 제형이 액체나 겔 제품 대비 모발의 뭉침과 딱집 현상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박하향까지 더해져 사용 후 청량감을 전달한다.

해당 신제품들은 모두 남성형 탈모증과 여성형 탈모증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남성은 최소 2~4개월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1일 총 사용량은 2g을 초과하지 않는다. 여성은 최소 3~6개월 꾸준한 사용이 요구되며 1일 총 사용량은 1g으로 제한된다.

태극제약은 일찍이 미녹시딜 성분을 처방한 물은 제품으로 브랜드 차별화를 이뤄냈다. 태극제약 대표 제품 ‘미녹시

딜 바이그루트겔5%’은 펜을 연상시키는 외형 디자인에 마사지볼을 탑재하고 있다. 헤어 라인 등 국소 부위에서 간편하게 활용 가능하다.

한편, 동국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먹는 탈모 치료제’로 경쟁력을 높이며 탈모 치료 분야로 진출해 있다.

동국제약의 판시딜은 모발과 손톱의 구성 성분인 케라틴, L시스틴, 모발 영양 성분 약용효모, 비타민 등 6가지 성분을 복합 함유한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판그로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 비타민B, 아미노산 등을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원인에 의한 탈모 증상을 완화해 준다. 이밖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현대 사회에서 탈모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젊은 세대에서도 탈모 고민은 늘고 있고, 유전적 요인, 호르몬 외에 외부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도 탈모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기준 국내 탈모 환자는 연간 약 30만 명에 달하며 연평균 증가율은 2.5% 수준이다.

/이청하 기자 mllee236@metroseoul.co.kr

CJ올리브영 “트렌드 따라 K뷰티 체험하세요”

홍대·성수서 체험형 팝업 행사 진행
산리오와 협업 여름추천 상품 선택

CJ올리브영은 7월 한 달간 서울 주요 매장에서 체험형 팝업 행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리브영의 주 고객층인 2030세대가 즐겨 찾는 지역에서 K뷰티 브랜드 경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오는 27일까지 ‘홍대트렌드팻 바이 올리브영홍대’에서는 바캉스를 주제로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여름 추천 상품을 선보인다. 6개 구역별 나만의 썸머 바캉스 키트를 완성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리브영 홍대 타운’에서는 올리브



‘트렌드팻 바이 올리브영홍대’에서 고객이 산리오캐릭터즈 굿즈를 촬영하며 쇼핑하고 있다. /CJ올리브영

영 대표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 ‘일소’가 헬로키티 한정판을 출시한다. 헬로키티가 일소의 브랜드 대표 제품을 소개하

며 피지, 모공 등 피부 관리를 상담해준다. 헬로키티 게임, 포토부스, 굿즈 등도 마련됐다.

‘올리브영엔(N) 성수’에서도 산리오 캐릭터들이 햇빛에 그을린 한정판 캐릭터들로 꾸며진 미션과 굿즈를 만나볼 수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팝업스토어는 올리브영 입점 브랜드들이 고객들에게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가깝게 다가가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와 고객의 접점을 확대하고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트렌디한 팝업스토어를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 준법 인증 사후심사 통과

경영진 의지·위험 대응 인정

동아쏘시오홀딩스는 ‘ISO 37301’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 화기구(ISO)가 2021년 제정한 국제 인증으로,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ISO 37301 인증을 최초 취득하고 올해 사후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경영진 및 직원의 높은 실천 의지, 인적 자본시스템 우수한 운영, 전사적 위험 식별 및 대응 체계 등에서 경쟁력을 입

증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해 회계 및 세금, 공정 거래, 반부패, 자본시장법, 기업 지배구조, 노동법 등 6개 핵심 영역을 파악해 통제 및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추가했고 향후 환경,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규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준법경영은 사회책임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며 “임직원 준법경영 실천 및 교육 참여, 체계 일상화를 통해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앵토즈마 장기 치료 안정성 확인

앵토즈마 52주 임상 결과 발표

셀트리온은 류마티스관절염(RA) 치료제 약템라 바이오시밀러 ‘앵토즈마’의 글로벌 임상 3상 52주 결과가 국제학술지 ‘임상 약물 연구(Clinical Drug Investigation)’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4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앵토즈마 정맥주사(IV) 제형의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 면역원성을 평가한 임상 3상의 52주 결과를 담고 있다.

임상은 초기 앵토즈마 투여군과 오리지널 의약품(약템라) 투여군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24주차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투여군에 대해서는 유지 투여군과 앵토즈마로 전환한 교체 투여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총 세 그룹으로 비교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앵토즈마를 지속 투여한 군, 오리지널 의약품을 유지한 군, 앵토즈마로 전환한 교체 투여군 모두에서 유효성, 약동학, 안전성, 면역원성 등을 포함한 주요 지표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장기 치료 및 스위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치료 옵션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앵토즈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약템라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

루킨(IL)-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억제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약 26억4500만 프랑(약 4조 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앵토즈마의 국내 허가를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초 미국과 유럽에서도 연이어 품목 허가를 받으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장기간 치료와 스위칭 상황에도 앵토즈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모두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서 의미가 크다”며 “발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처방 및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뚜레쥬르, 저속노화 콘셉트 건강빵 선택

‘SLOW TLJ’ 3종 추가 출시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건강빵 신제품 3종을 추가로 출시하며 ‘SLOW TLJ’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카무트, 오토밀 등 저속노화를 대표하는 곡물을 활용했으며 뚜레쥬르만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고소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고식이섬유&저당 카무트 곡물식빵’은 촉촉한 식감과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곡물식빵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무트와 밀기울을 듬뿍 넣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카무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곡물로 식이섬유,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밀기울은 밀

가루를 가공할 때 얻을 수 있는 밀의 속껍질로 영양소가 풍부하다.

슈퍼곡물 ‘오토밀’을 활용한 식빵과 모닝롤도 선보인다. ‘슬로우 오토식빵’은 카무트, 듀럼밀, 오토밀로 식이섬유를 채웠으며 통곡물을 그대로 넣어 씹을수록 고소하고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슬로우 오토 모닝롤’은 버터, 우유, 계란 대신 ‘오토밀 페스토’를 더해 만들어 더욱 고소하고 촉촉하게 즐길 수 있다.

한편 ‘SLOW TLJ’는 뚜레쥬르가 오랫동안 지켜온 ‘건강’에 대한 철학과 ‘저속노화(Slow Aging)’의 기능적 이미지를 접목시킨 것으로, 뚜레쥬르는 기존에 선보여온 건강빵 제품들과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들을 ‘SLOW TLJ’로 소통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일시| 7월 22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 주제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일시 2025년 7월 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 장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문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15	〈축사〉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5~14:50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 달러약세와 지배구조 개선이 가져올 한국증시의 변화
강연	14:50~15:30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 전무 : 글로벌 자산배분과 리스크 대응형 포트폴리오
	15:30~16:1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내 집은 자산일까, 부채일까?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전략과 부동산 시장 전망
	16:10~16:50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 : 트럼프 2기와 스테이블코인: 미국의 디지털자산 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학균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투자분석부장
-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



박희운
-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
- KB증권 리서치센터 전문위원
-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장



정재훈
-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차장
-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민승
- 코빗 리서치센터 설립 멤버 및 리서치센터장
- 다수 블록체인 스타트업에서 전략기획 업무 수행



현대차 정몽구재단, 韓·日 재단 교류행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15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한·일 재단 교류 행사인 '코리아-재팬 파운데이션 익스체인지 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재단은 양국의 민간 공익재단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각국 주요 재단의 공익 활동 사례와 운영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서 이번 교류 행사를 기획했다. /현대차정몽구재단



청호나이스, 서울시 어린이병원 벽화 그리기 봉사

청호나이스는 사내 봉사활동 모임인 '작은사랑실천운동본부'가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벽화 그리기 봉사를 통해 따뜻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청호나이스 임직원 약 20여명이 참여해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청호나이스



GC녹십자, '소리드림' 통해 독서 취약계층 도와

GC녹십자가 지역상생 사회공헌 활동 '소리드림'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소리드림'은 다문화 가정, 시각장애 아동 등에게 동화책 낭독 목소리 녹음본과 동화책을 기부함으로써 독서 취약 계층의 문화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에는 GC, GC녹십자, GC셀 계열사 직원 등 30명이 참여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다. /GC녹십자



세븐일레븐, 내일부터 '거창군 양파' 판매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경상남도 거창군과 협력해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18일부터 거창군 양파 본격 판매에 나선다. 이번 양파 판매는 전국적으로 양파 출하량이 늘면서 적정 수취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세븐일레븐



신한은행-대한치과기공사協, 협회원 맞춤상품 제공

신한은행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와 협회원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원 대상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제공 ▲협회 및 은행의 디지털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 추진 등을 추진한다. 김재민 신한은행 영업추진그룹장(오른쪽)과 김정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이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LG전자 앰버서더, 콘텐츠 조회수 2500만회 돌파

‘2025 앰버서더 어워즈’ SNS 팔로워 수 460만명 돌파 “고객주도 플랫폼으로 팬덤 확대”

LG전자가 고객 주도형 콘텐츠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팬덤 강화에 나서고 있다. LG전자 앰버서더 1·2기 활동 콘텐츠는 누적 1800건, 순조회수 2500만회를 넘겼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2025 앰버서더 어워즈’를 열고 2기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메타 협업 마케터 강연, 인기 크리에이터 토크쇼, 네트워킹 파티 등도 함께 진행됐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2025 앰버서더 어워즈’를 열고 2기 활동을 공식 마무리했다. 위 사진은 앰버서더 1·2기 크리에이터 파티 현장 사진. /LG전자

앰버서더는 LG전자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공식 크리에이

터 그룹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120명이 선발됐으며, 이들의 SNS 팔로워 수는 460만명을 넘는다.

이날 어워즈에서는 우수 활동자 14명이 선정됐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로 팔로워 수를 5만 7000명가량 늘린 ‘판타소녀’가 최대 성장상을, 총 256만 조회수를 기록한 ‘썰의신’이 최다 조회수상을 수상했다. 이들에게는 각 500만 포인트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콘텐츠 퀄리티상, Better Life상 등도 함께 시상됐다.

LG전자 관계자는 “고객 주도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와 소비자가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팬덤을 자연스럽게 확대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롯데케미칼, 벤처기업 지원 나서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식 폐플라스틱 재생 관련 기업 발굴

롯데케미칼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오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잠실롯데월드타워에서 ‘프로젝트 루프 소셜’ 4기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로젝트 루프 소셜은 롯데케미칼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루프’ 캠페인의 일환이다. 폐플라스틱 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자원 선순환 프로세스를 확장한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2020년 소셜벤처 기업 8개사와 함께 프로젝트 루프 소셜 시범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3기 정식 사업 포함 총 19개 기업을 지원했다.

이번 4기 모집에서 롯데케미칼은 프로젝트 루프 주관 기업인 임팩트스퀘어와 함께 심사를 진행해 플라스틱 자원의 수거, 선별, 원료화를 추

진하는 유망 소셜벤처 기업 6개사를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는 사업 실현금 지원,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판로 구축 등 다양한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선발된 6개사는 AI 로봇 솔루션 기반 폐플라스틱 재활용 선별 기업 ‘에이트테크’, 재활용 플라스틱 전문 유통 플랫폼 ‘파운드오브제’, 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분해 기술 보유기업 ‘리플라’,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포어시스’, 고분자 표적 추출 방식 섬유 재활용 기업 ‘텍스타일리’, 연속 초음파 열분해 활용 폐플라스틱 자원순환 기업 ‘아크론에코’이다.

롯데케미칼 이영준 총괄대표는 “프로젝트 루프 소셜 활동을 통해 소셜벤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원 선순환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선정된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스타벅스,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

‘커피 엑셀런스 센터’ 출범

개점 26주년을 맞은 스타벅스가 국내 처음으로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조직을 출범하며 본업 강화에 나선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브랜드의 핵심이자 본질인 커피 경험 강화와 고객 고감각 실현을 위해 ‘커피 엑셀런스 센터(Coffee Excellence Center, CEC)’를 새롭게 출범하고, 커피 서비스 전문가 양성을 통한 고객 경험 극대화에 집중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사내 자격증이자 커피 지식 및 교육 프로그램인 커피메스터 제도와 함께 매년 스타벅스 바리스타를 대표하는 1인의 커피앰배서더를 선발해 대외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벅스의 커피 지식과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한 커피메스터는 약 1만 7000여명에 이르며, 전국 매장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스타벅스의 커피 경험 전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엑셀런스 코치와 파트너가 커피 제조 과정을 실습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엑셀런스 센터’는 이러한 스타벅스의 커피 및 서비스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헤리티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다. 파트너들에게는 다양한 경험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커피와 서비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매장 경험을 전달할 계획이다.

파트너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커피 엑셀런스 센터’는 커피메스터 자격을 보유한 파트너 중 커피와 서비스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24명의 최정예 멤버로 구성되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현대차그룹, 공항서 전동화 휠체어 대여

무상대여로 교통약자 지원

현대차그룹은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현대차그룹 이항수 부사장,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재강 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동화 휠체어 대여소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현대차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휠세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전동화 키트를 무상 대여하는 서비스로, 키트가 장착된 전동화 휠체어는 수동 휠체어에 비해 끄는 힘이 적게 들면서도 전동 휠체어보다 가볍다는 장점이 있다.

휠세어 인천국제공항 대여소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7, 8번 출구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조이스틱형 ▲보호자 조작형 ▲꼬리형 등 총 30대의 휠체어 전동화



인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왼쪽부터), 현대차그룹 이항수 부사장,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이재강 회장이 1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전동화 휠체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현대차그룹

키트와 ▲경량 전동휠 6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전동화 키트와 경량 전동 휠체어 가운데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선택해 1회 최대 15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대여한 장비는 해외로도 반출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ysw@

사립대의료원協 회장에 유경하 의료원장

(이화의료원)

협회, 임시총회 열고 연임 결정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은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사진)이 ‘제16대 사립대의료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사립대의료원협의회는 지난 14일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025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유 원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유 원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쳐 일찍이 2020년 2월부터 이화의료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특히 유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소아종양 및 혈액종양 분야에서 다양한 학술활동도 지속해왔다. 국내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학술이사,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학술이사,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 이사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인사

◆BNK금융그룹 <부산은행> ◇부실점장 승진 △양산금융센터 정현석 △영양추진부 이주현 △해양금융부 조주한 ◇부실점장 전보 △IT기획부 김종철 △IT 품질관리부 김성희

부음

▲최광식(향년 84세)씨 별세, 최지우(법무법인 자유 변호사)씨 부친상=15일 오전 5시 25분, 충북 제천 제일장례식장 3층 VIP실, 발인 17일 오전 8시, 장지 영원한침터. 043-645-4114

박람회 예찬



신상용의 벤처나라

틈틈이 박람회를 찾는다. 30대 초반에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산업전시회를 관람하기 시작했다. 자주 찾다 보니 어느덧 취미가 되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9호선 봉은사역에 위치한 '코엑스(COEX)',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장인 3호선 학여울역 '세텍(SETEC)', 푸드테크 분야 박람회에 특화된 신분당신 양재시민의숲역 'aT센터', 지난해 개관해 최신 편의시설과 삼성동 코엑스 대비 1.8배 큰 규모를 갖춘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 있는 '코엑스 마곡'을 주로 간다.

대부분의 벤처·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렇듯이 필자 또한 고객사 영업과 IR(투자설명회) 라운드 등 하루에도 수차례 방방곡곡 현장을 누빈다. 외근 나갔을 때 이동 동선에 맞춰 잠시 짬을 내어 박람회를 방문한다. 시간 약속은 신뢰이기 때문에

외부 미팅을 갈 때는 교통 상황 변수가 적은 지하철을 이용한다. 앞서 전시회장들을 소개할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접근성이 훌륭한 점도 자주 찾게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박람회를 가면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 우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산업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의 홍수 시대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지금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화면만 열어도 각종 최신 트렌드들이 쏟아진다. 하지만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관건이다.

매주 테마별 기업과 기술을 전시하는 박람회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최적의 플랫폼이다. 온라인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제품의 질감, 기술의 작동 방식, 서비스의 운영 모습을 관계자의 시연과 설명으로 보고 들으며 경험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뿐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도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비교하며 개선점을 발견하는 훌륭한 '경험 자산'이 된다.

박람회에 참여한 기업들 부스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제휴 파트너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때 자연스럽게 필자가 판매하는 렌탈전환(RX) 솔루션을 설명하다 보면 신규 고객사를 유치하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는 얻기 힘든 오프라인 박람회의 장점이다.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옳다는 것을 체감한다.

건강도 챙기는 건 덩이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만보를 훌쩍 넘기게 된다. 이처럼 경험 자산을 얻고, 협업 파트너도 찾고, 고객사 영업도 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안겨주는 박람회의 장점은 무수히 많다. 참! 웬만한 박람회는 사전 등록을 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최고의 가성비로 자기 개발과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지하철역에 들어가기 전 오랜만에 만난 무가지 신문을 집어 들었다. 신문을 읽다가 금주의 전시·박람회 정보를 모아둔 코너가 눈에 들어온다.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보다 신문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무가지 신문을 지하철역에서 자주 만나면 좋겠다.

/프리랜스 대표

오늘의 운세 7월 17일 (음 6월 23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날개 없이 하늘을 나는 기분. 48년생 배우자가 내게 좋은 협력자. 60년생 오늘의 영광은 어제의 고난에서 오는 보답. 72년생 경관은 화려하나 머물 곳은 없는데. 84년생 아래 직원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니 기분이 상쾌.



37년생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증지하는 것이. 49년생 사람이 총동적이지 않길. 61년생 상대가 경쟁자여도 본받을 것은 인정해야 한다. 73년생 영업에서 이익이 생기니 얼굴도 밝아진다. 85년생 내키지 않은 모임이라면 가지마라.



38년생 약속이 겹칠 수 있으니 반드시 메모. 50년생 좋은 재물취득의 정보가 들어온다. 62년생 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성사되지 못한다. 74년생 조직에서 하나를 양보하니 세 개로 돌아오는 날. 86년생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39년생 아랫사람에게 한 격려가 큰 성과로 돌아온다. 51년생 함께하는 상대방을 의심하지 마라. 63년생 결과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75년생 분쟁과 갈등이 있는 게 세상사이다. 87년생 요행수를 바라다가 큰 손실이 인다.



40년생 병은 자랑해야 빨리 낫는다. 5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즐거운 날. 64년생 오늘은 주인공이니 무슨 일이든 참석. 76년생 주변이 시끄러워도 영업에서 이득발생. 88년생 문서로 인한 이익이 있으니 기회를 잘 잡자.



41년생 기대가 너무 커서 실망도 크다. 53년생 실패한 거사는 돌아보지 마라. 65년생 구름만 잔뜩 끼어 있고 비는 오지 않는 형국이다. 77년생 짜증나고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하는 운. 89년생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



42년생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겨라. 54년생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다른 모양이다. 66년생 넓게 바라보면 여유가 생기니 다시 실행. 78년생 사춘이 땅을 사니 갑자기 배가 아프다. 90년생 모처럼 비가 오니 경제적 여건이 호전.



43년생 감정절제를 잘 해야 일이 성사. 55년생 재운 앞두고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67년생 갑자기 길 떠나는 데 신발 끈이 풀려 지체된다. 79년생 집짓고 삼년이라 했는데. 91년생 즐거운 일이 넘치니 뭘 해야 하나 고민.



44년생 눈치가 빨라야 절에 가서도 새우젓 얻어먹는다. 56년생 동분서주 하는 날. 68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좋은 것은 아니다. 80년생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야 하는데. 92년생 지혜는 부족해도 근면성실로 극복.



45년생 바보 같은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 57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69년생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 가서 분풀이를. 81년생 종이 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 지 절을 허물 수는. 93년생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46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58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마음이 날아갈 듯하다. 70년생 작장에서 신경질 내지 말고 일을 진행. 82년생 좋은 일이 생기니 운이 풀리고 이익도 늘어난다. 94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산뜻.



47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조력자가 옆에 있어서 다행. 59년생 금전문제 아니면 속상할 일이 있다. 71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83년생 참으면 복이 되는 날이다. 95년생 흥왕성쇠興亡盛衰는 누구나 있기 마련이니 신용을 최우선.

6·27 부동산 대책, 억제보다 조율이 필요하다



기지수첩 전지원 (금융부)

6·27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남긴 것은 거래 절벽과 실수요자의 허탈감이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는 발표 다음 날부터 전면 시행됐고, 그 즉시 서울 아파트 시장은 빠르게 식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칼날은 시장의 열기를 식히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칼끝이 향한 곳이 적절했는지는 따져볼 일이다.

정부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은 전면 금지했다. 1주택자 역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예외는 아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

에서 70%로 낮아졌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까지 생겼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위축되면 서민층 주거 안정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이번 대책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뛰어넘는 강도 높은 여신 규제"라며 "자기자본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시장에서 밀려나고, 자산가만 살아남는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자 잡아야 할 투기 수요는 비껴가고,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의 문도 생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프리미어팩스파인더전문위원은 "소득이 낮은 계층은 DSR 통과도 어렵고, 정책금융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6억원 한도 안에

서도 대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 중이던 계약자조차 차주가 바뀌면 한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도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 잔금 대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자금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억제보다 조율이 필요하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자산가는 비껴간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치밀한 정책 설계다. 수요를 조이기 전에 공급을 확실히 만들고 투기를 차단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의 숨통부터 살려야 한다. 이번 규제가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정책 조율과 보완 방향에 달려 있다. /jjw13@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돈이나 지위나

패기 넘치는 한 직장인이 상담을 왔다. 그의 고민은 단순하면서도 어려웠다. 돈과 지위, 어떤 걸 목표로 해야 할까요?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도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갈등이다. 답은 그의 사주에 있었다. 필자는 상담자에게 지위를 목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사주에 비겁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비겁은 통찰력을 제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비겁이 발달한 사주는 인간관계가 풍부하고 넓으며 유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고 혼자보다는 함께 일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낸다. 비겁은 또한 사람을 부리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과 통찰력을 상징한다.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비겁이 발달한 경우가 많은데 무엇보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이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욕구가 크다. 남들의 앞에 서서 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며 성취감을 느낀다. 만약 그런 비겁 사주가 처음부터 돈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돈을 벌더라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다. 일시적으로 만족은 얻을지라도 결국에는 다시 지위를 갖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 하는 성향 때문에 방향을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들은 처음부터 지위를 목표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지위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는다. 성향에 맞는 일을 즐겁게 하면 돈도 저절로 따라온다. 팔자에 맞는 직업을 찾아 그에 걸맞은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사주와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길을 선택하다 보면 진정한 성공이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의 월드레벨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노스의 월드레벨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QR코드: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6	9	1	2	8	7	9
2	1	8	9	7	2	9	6	8
9	7	9	6	8	8	1	2	2
1	6	8	8	2	7	2	9	9
7	2	9	1	8	9	6	8	1
9	8	2	1	6	5	2	8	7
8	9	7	8	2	6	9	1	2
2	8	1	2	9	8	7	9	6
6	9	2	7	9	1	8	2	8

2	9	8	7	9	1	2	8	6
2	7	6	8	2	9	9	8	1
1	8	9	6	8	2	9	7	2
8	1	7	9	2	6	1	9	8
6	1	9	9	8	7	8	1	2
9	2	8	9	1	2	7	6	8
9	1	2	8	8	6	1	7	9
8	6	2	1	9	7	8	2	9
7	8	1	2	6	9	8	2	9

7			6	4				9
							3	7
	1	5	9	7				8
							8	
1		9			5			4
	5							
7				8	9	6	4	
3	9							
5			2	1				7

5			6			1		4
							2	
4	1		8	3				
				1		3		6
		1	3		8	5		
3		7		2				
					8	9		3
		6						
9		2			4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71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817호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논문표절·제1저자 논란 반박... “학계 현실 고려하지 않아”

이진숙 장관 후보자 청문회

유사자료 누적에 따른 오해 주장
자녀 조기유학 논란엔 고개 숙여
“교육부 장관, 잘할 수 있을 것”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 및 제1저자 논란 가로 채기 의혹에 대해 “학계 현실과 연구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총장 임용 직전까지 약 100편의 논문을 카피킬러 등 검증 도구로 점검했으며, 모두 유사도 10% 미만의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검증단이 문제 삼은 논문은 대부분 2007년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유사도 수치도 1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며 “카피킬러는 유사 자료가 누적되면 수치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분석하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메트로신문 기자 son@

주장했다.

여당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조차 “후보자의 논문 상당수가 카피킬러에서 높은 복사율을 보였다”며 이공계와 인문계 논문 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표절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후보자는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카피킬러는 단지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학문적 맥락을 중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1저자 논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려 ‘연구 가로채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이공계 연구는 대부분 지도교수가 주축한 국가 과제의 일부로 진행되고, 제자들은 그 과제를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발전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재단 지침에 따르면 기어

도를 기준으로 제1저자를 정해야 하며, 제1저자는 실험 수행 등에서 역할을 맡을 뿐 연구 기획과 방법론 설계는 교수가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공동연구 논문 중 제1저자로 등재된 경우는 전체의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제자들과 협업해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논문에 실린 표가 유사한 것도 같은 실험을 공동으로 수행한 결과이며, 이는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두 딸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2001년부터 1년간 (본인과 배우자 모두) 미국에 방문연구원으로 체류한 경험이 계기가 됐다”며 “큰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한국 학제와 맞지 않는 시점에 유학을 보낸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제 불찰”이라며 “아이를 6개월 먼저 보낸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피보험자 등록과 관련해서

도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단순 실수였다”며 “자녀는 미국에서 별도로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번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잘못된 등록을 확인한 뒤 즉시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표절 의혹, 제1저자 논란, 자녀 교육 문제 등은 교육 수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핵심 기준이라며 자진 사퇴 의향을 거듭 물었지만, 이 후보자는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기 전에 자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의원님께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하셨지만, 제 주변을 보면 몇몇 반대는 있었으나 22만 명 규모의 총내대 총동창회를 비롯해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 다수의 교수 집단이 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질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시, ‘제2회 제물포 웨이브 마켓’ 개최

26일~27일 상상플랫폼 웨이브 홀

인천도심에서 지역 브랜드와 빈티지 감성이 어우러지는 도심형 마켓이 열린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상상플랫폼 웨이브 홀에서 ‘제2회 제물포 웨이브 마켓’을 개최한다.

이번 마켓은 인천을 대표하는 로컬 브랜드 70팀과 국내 빈티지 셀러 20팀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역 상권과 창작자 간 시너지를 도모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 장소는 상상플랫폼 내 실내 공간인 웨이브홀이며, 주말 이틀간 진행된다.

‘제물포 웨이브 마켓’은 인천 원도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지난 6월 열린 1회 행사에 총 2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2회차 마켓은 ‘인천에서 느끼는 유럽’이라는 콘셉트로 빈티지 마켓을 강화했다. 유럽 현지에서 들여온 소품들을 중심으로 한 셀러 20팀이 참여하며, 로컬 브랜드와 어우러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로컬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DJ 공연, 브랜드 경매 등 매시간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셀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상품으로 진행되는 경매 수익금은 향후 로컬 브랜드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민화 그리기, 자개, 보자기, 원목 공예 등 전통 소재를 활용한 체험 부스가 마련되며, 지역 경제와 연계된 쿠폰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3주년 간담회

“AI 기반 행정체계 혁신... 삶의 변화 이끌 것”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 등 과제 제시
“임기 마지막 1년, 실행의 시간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마지막 1년은 마무리가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라며 ▲AI 기반 행정체계 도입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 ▲청년 지원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진정한 경쟁력은 통째나 외형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일상 속에 있다”며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드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자체 행정용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다. 민간 초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보고서 초안 작성, 매뉴얼 기반 질의응답, 문서 자동분석 등 실무 중심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공무원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 시민에게 더 빠르고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5000명 이상의 직원이 AI 활용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사업에 AI가 시범 적용 중이며, 119 신고 분석, 어르신 안부확인,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CCTV 감시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공공주택진흥기금’ 신설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기존의 도시계획 인센티브에 더해, 토지 매



오세훈 서울시장 16일 민선8기 취임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

입·건설 자금 용자·이자 지원 등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문제는 거래보다 거주가 핵심”이라며 “현실적인 수단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2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확보했으며, 이번 기금은 공급 유인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정책으로는 온라인 학습 지원 플랫폼 ‘서울러’를 진로교육과 예체능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섯 번의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경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시적 소득 공백을 겪는 청년에게 지원하는 ‘디딤돌소득’도 지속 운영된다. 오 시장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 내 운동공간 ‘펀스테이션’을 전 차치구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사업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서울야외도서관은 누적 300만 명이 이용했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독점과 보라매공원 등으로 확산 중”이라며 “한강은 연간 8200만 명이 찾는 여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조만간 ‘한강버스’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동행카드는 현재 청소년, 다자녀 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교통비 절감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용적 정책”이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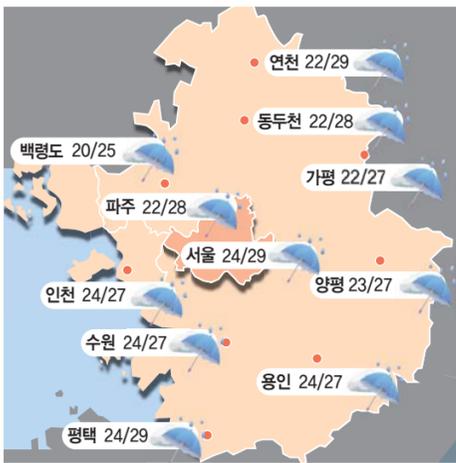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4 | 해질 / 19:52

7월 17일 (목)
음력 : 6월 23일

수도권 날씨
24~29°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 트럼프, “푸틴에 실망”... 메르츠와 통화 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결정 /사진 뉴스
▲ 美 ‘러 무역국에 관세’ 위협에... 中 “불법·일방적 제재 반대”

▲ 캐나다 국민 84% 트럼프 불신, 다수가 대미협상 “강경 대응” 원해
▲ 선거 위기 日이시바, 美와 관세 협상 “반드시 성공한다”

▲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 8월31~9월1일 텐진서 개최
▲ 엔비디아, 中 수출 재개했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휴전 한가운데



유아동 시장
저출생 정책에도
실적 하락
나



Life

탈모치료제
신제품 붐물
경쟁 가속화
L2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20억개 비빔 여름의 맛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팔도비빔면

출시 41년 맛은 비빔 라면의 '원조'
누적매출 1조, 판매량 20억개 돌파

전국 맛집 연구 끝에 황금소스 구현
한정판, 품질향상으로 꾸준한 인기

간장·후추 감칠맛 살린 '비빔면 II'
트렌드 반영한 '제로슈거' 출시도



(위부터) 팔도비빔면, 팔도비빔면 제로 슈거, 팔도비빔면 II. /팔도

1984년 첫 출시 이후, 수많은 모방과 도전을 견뎌내며 비빔면 시장의 중심을 지켜 온 팔도 비빔면. 매콤달콤한 시그니처 소스는 세대를 넘어 '여름의 맛'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고, 한때는 여름 한정 제품이었지만 이제는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국민 비빔면으로 자리 잡았다.

'팔도비빔면'은 뜨거운 국물 라면 중심의 시장을 차갑게 비벼먹는 라면으로 확장한 기념비적 제품이다. 올해 출시 41주년을 맞은 장수브랜드로 누적 매출액은 1조 원에 달하며, 누적 판매량 20억 개를 돌파했다. 국민 전체가 38개씩 먹을 수 있는 양이다. 1인당 40개 가까이 팔도비빔면을 비빔 셈이다.

팔도는 여름철 집에서 살아먹던 비빔국수를 라면으로 탄생시켜 당시 소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소면과 유사한 얇은 면발을 제품에 적용, 얇은 면발은 빠른 시간 내에 익어 더운 여름 불앞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액상소스가 골고루 붙어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준다. 출시 당시에는 계절면 제품으로 여름철에만 한정적으로 판매했다.

팔도 연구원들은 출시에 앞서 전국에 유명한 맛집의 비빔냉면과 비빔국수 등을 연구하여 매콤, 새콤, 달콤한 황금비율 소스를 구현했다. 특히 치열한 라면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만들기 위한 역발상에 집중했다. 액상소프는 분말소프 대비 안정성과 품질 유지의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이 따랐지만 2년여 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했다.

특유의 맛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 중이다. 액상소스는 원물을 분쇄해 엑기스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제조된다. 원료 수급 상황이 매년 달라 공정상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연구원들은 제품의 균일한 맛을 위해 산지를 직접 다니며 원재료를 수급한다.

출시 당시에는 라면을 찬물에 행군 뒤 소스에 비벼먹는다는 개념이 알려지지 않았던 때라 뜨거운 상태에서 비벼먹거나 일반 라면처럼 끓여먹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팔



도는 조리법을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비빔면”이라는 CM송을 제작했다.

꾸준히 사랑받는 비빔은 색다른 콘셉트와 품질향상에 있다.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주효했다.

팔도는 제품을 연중 즐기고 싶다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계절별 에디션으로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우동 국물 스프 등을 첨부해 새로운 재미와 경험을 제공한다. 한정판 누적 판매량은 3500만 개에 이르며, 동절기 판매량 역시 2014년 대비 200%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변화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춰 신개념 하이브리드 비빔라면 '팔도비빔면 II'를 선보였다. 간장, 후추 베이스의 감칠맛이 특징으로 차돌박이, 골뱅이 등 선호하는 토핑을 곁들여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어 술안주로도 각광받았다.

그리고 지난 3월 제로 트렌드를 반영해 '팔도비빔면 제로'를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 비빔라면 최초로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맛을 낸 제품이다. '알룰로스'를 활용해 식약처 무당류 표시기준을 충족한다. 팔도만의 액상소프 연구기술력으로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며 상큼함을 더했다.

신규 배합을 적용한 면발도 특징이다. 기존 제품과 비교해 밀가루 사용을 줄이고



팔도비빔면이 누적 판매량 20억개를 돌파했다.

전분 함량을 높여 탄력을 높였다.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이 액상소프와 잘 어울린다.

한편, 팔도는 팔도비빔면 20억 개 판매 달성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공식 SNS 계정에 댓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팔도비빔면 기프트박스'를 증정한다.

이수향 팔도 마케팅1팀장은 “팔도비빔면이 20억 개 판매고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제품 품질 향상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NL, MLB 올스타전서 연장 홈런더비 끝에 AL 제압...MVP는 슈와버
▲한화 '키플레이어' 문현빈...“한국시리즈 꼭 진출할 것”
/사진 뉴시스

▲2028년 LA 올림픽서 오타니 보나...MLB 커미셔너·선수노조 '긍정 전망'
▲태권도진흥재단, 대학생 학술대회 참가자 모집...내달 1일 마감

▲김경문 감독 1000승·양현종 11시즌 연속 100K...후반기 달굴 대기록 기대
▲사상 첫 한일전 3연패 '0골 7실점'...한일축구 격차만 실감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사전 판매 | 25.07.15 ~ 25.07.21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